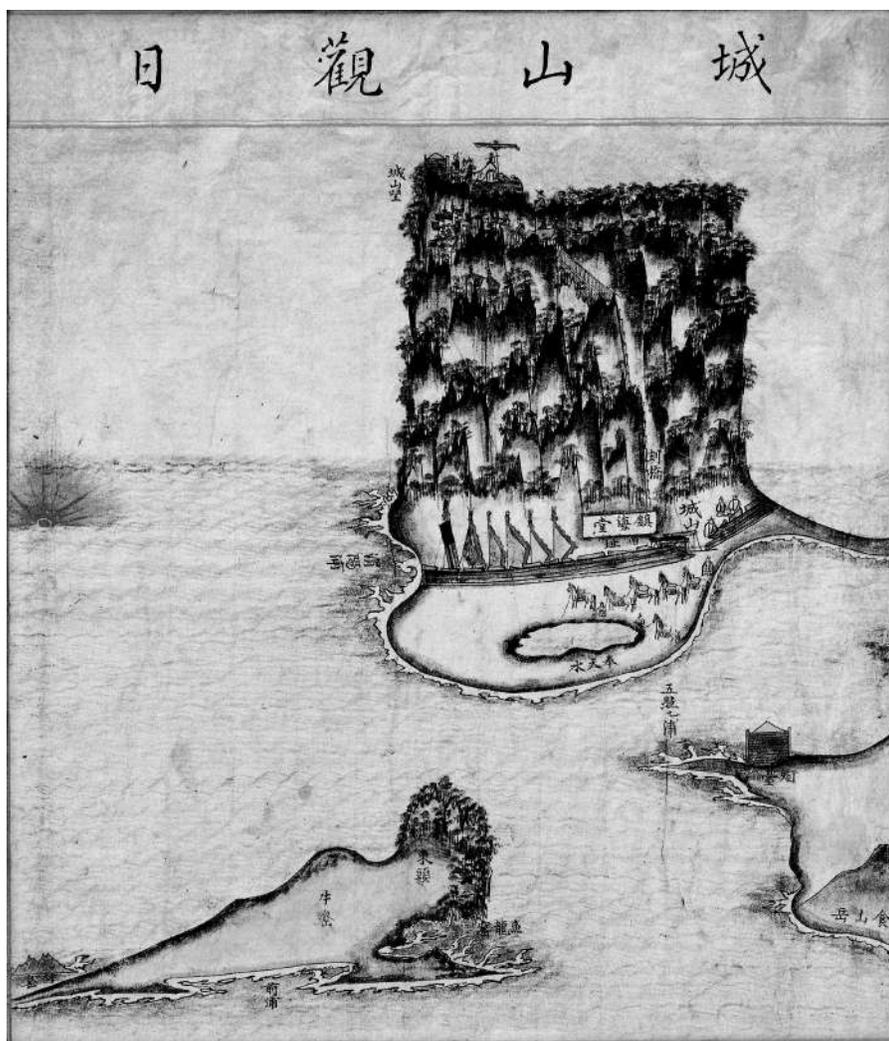


# 제5장 성 산 읍



## 성산읍(城山邑)

성산읍의 동쪽과 남쪽은 바다에 접하고 서쪽은 표선면 하천리, 성읍리와 경계를 이루며 북쪽은 제주시 구좌읍이다.

성산읍 지역에는 오래전 선사시대 사람들이 거주했던 삶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sup>1)</sup> 이를 살펴보면



- 온평리 유물산포지와 신양리패총 등은 신석기시대 유적으로 BC3,000년 ~ BC1,000년 어간의 유적들이다.
- 신천리 고인돌, 신산리 고인돌 등은 탐라국 형성기 때인BC200년 ~ AD200년 어간의 유적들이다.

그리고 성산읍 온평리에는 혼인지(婚姻池) 유적이 있으며 이는 탐라국 개국에 따른 삼성신화(三姓神話)를 탄생시킨 지역이기도 하다.

고려말에 편찬한 영주지(瀛州誌)에 의하면, 영주(瀛州)에는 태초에 사람이 없었는데 홀연히 세 신인(三神人)이 한라산 북쪽 기슭 모흥혈(毛興穴)에서 솟아났다. 장(長)은 고을나(高乙那), 다음(次)은 양을나(梁乙那), 부을나(夫乙那)라 하였다.

그들의 용모는 매우 크고 비범한 모습이였다. 늘 가죽옷을 입고 고기만을 먹으며, 바다고기 잡이와 사냥으로 일을 삼고 살았다.

삼신인은 온평리(溫平里) 해안에서 벽랑국(碧浪國) 삼공주를 맞이한 후 해안 근처에 있는 조그만 못(池)에서 목욕제계하고 나이차례대로 서로 짝을 맞추어 혼례식을 올렸다고 한다.

1) 남제주군지 1권 471, 485, 489쪽. 남제주군 2006

세신인은 곧 나이 차례로 세공주와 각각 혼인하여 물 좋고 기름진 땅을 골라 활을 쏘아 땅을 정하니, 고을나(高乙那)는 제일도(第一都), 양을나(梁乙那)는 제이도(第二都), 부을나(夫乙那)는 제삼도(第三都)에 자리를 정하였다.

이로부터 오곡의 씨를 뿌리고 송아지, 땅아지를 가꾸게 되니 드디어 인간의 세계를 이룩하여 놓았다. 이렇게 하여 탐라국이 개창 되었다고 한다.<sup>2)</sup>

이러한 선사시대(先史時代. AD1년 이전)나 원사시대(原史時代. AD1년 ~ AD300년)를 지나 역사적으로 성산읍 지역이 등장하는 것은 고려조에 와서이다.

이를 살펴보면,

- 1270년(원종11)부터 고려조정에서는 영암부사(靈岩副使) 김수(金須)와 시랑(侍郎) 고여림(高如霖) 등에게 명하여 탐라를 방어하기 위하여 환해장성을 쌓도록 하였다. 그러나 고여림의 관군은 동제원(東濟院)에서 삼별초의 별장 이문경(李文京)에게 패하자 이번에는 삼별초에 의해서 제주도민을 동원하여 환해장성을 축성하였다. 그 잔해가 온평리 해안에 2.5km, 신산리 600m가 남아 있다.
- 1271년(원종12) 삼별초의 장군 유재섭(劉在燮)이 전선 80여척을 이끌고 들어와 김통정(金通精) 장군과 합세하였다. 그들은 현 성산읍 고성리에 석성(石城)을, 성산기슭의 오적포(烏賊浦)에서 수마포(受馬浦)까지 약 1km 토성을 쌓고 이곳을 본영으로 삼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되어 귀일촌 향과두리로 옮겼다.<sup>3)</sup>
- 1277년(충렬왕3) 원은 수산평(首山坪)에 동아막(東阿幕)을 세워 말 160필, 소, 낙타, 양, 고라니 등을 방목하고 다루가치(達魯花赤)인 탐자적(탐刺赤)으로 하여금 관리케 하였다. 여기서 양육된 말은 일출봉 서녘 기슭 바닷가에서 육지로 실러 갔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포구를 지금도 수마포(受馬浦)라 하고 있다.

그 후 고려시대가 지나고 조선이 개국되었다. 1416년(태종16) 5월에 도안무사(都按撫使) 오식(吳湜)과 전판관(前判官)인 장합(張合)이 조정에 아뢰어 제주목(濟州牧)의 관장하던 산남의 200리 땅을 양분하고 정의현과 대정현(大靜縣)을 설치

2) 탐라성주유사 69-74쪽. 탐라성주유사편찬위원회. 1979

3) 성산읍지 252쪽. 성산읍. 2005

하였다. 그와 더불어 정의현(旌義縣)에는 토산현(兔山縣), 호아현(狐兒縣), 홍로현(洪爐縣)을 예속시켰다. 그 정의현 읍성이 바로 고성리에 위치하였다.

그러나 읍성이 동쪽에 치우쳐 대정현(大靜縣)과 거리가 100리나 되고 왜구내침에 방비가 어렵다하여 1423년(세종5)에 읍성을 진사리(짚솨리. 현 성읍리)로 이전하였다.

1789년(정조13) 호구총수에는 마마면(牟爾面), 성읍면(城邑面), 촌읍면(村邑面)이 있었다. 그 후 18세기 말에 정의현의 면을 개편 할때 현의 좌측에 놓여 있으므로 좌면으로 명명 하였다.

따라서 성산읍과 마을의 변천과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sup>4)</sup>

○ 1789년(정조13) 호구총수

고마면(牟爾面),: 종달리(終達里), 역돌리(力疋里), 오조리(吾召里), 고성리(古城里), 신양리(新陽里), 산양리(山陽里)

성읍면(城邑面) : 성읍리(城邑里), 궁산리(弓山里)

촌읍면(村邑面) : 난산리(蘭山里), 여온리(與溫里), 신산리(新山里), 삼달리(三達里), 신흥리(新楓里), 하천미리(下川尾里), 신천미리(新川尾里)

○ 18세기 말 제주읍지의 삼읍 방리조

좌면 : 종달리(終達里), 신달리(新達里), 력석을리(力石乙里), 오조리(吾召里), 고성리(古城里), 신양리(新陽里), 산양리(山陽里), 궁산리(弓山里), 성읍리(城邑里), 난산리(難山里), 여온리(與溫里), 신산리(新山里), 삼달리(三達里), 신흥리(新楓里), 신천미리(新川尾里), 하천미리(下川尾里)

○ 1872년 제주삼읍전도

좌면 : 성읍리(城邑里), 삼달리(三達里), 신흥리(新豐里), 하천리(下川里), 신천리(新川里), 서난산리(西蘭山里), 동난산리(東蘭山里), 신산리(新山里), 여온리(與溫里), 성산리(城山里), 역돌리(力疋里), 종달리(終達里), 수산리(水山里), 상고성리(上古城里), 하고성리(下古城里), 오조리(吾照里)

4) 오창명. 제주도마을이름의 종합적연구 I 61-83쪽.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7

## ○ 1899년 정의군 읍지

좌면 : 력돌리(力厓里), 신력돌리(新力厓里), 오조리(吾照里), 고성리(古城里),  
성산리(城山里), 상수산리(上水山里), 하수산리(下水山里), 동온평리(東  
溫平里), 서온평리(西溫平里), 난산리(蘭山里), 신산리(新山里), 삼달리  
(三達里), 신평리(新豐里), 신평리(新坪里), 신천리(新川里), 하천리(下  
川里), 성읍리(城邑里)

## ○ 1904년(광무8) 제주목의 삼군 호구가간총책

좌면 : 력돌리(力厓里), 오조리(吾照里), 고성리(古城里), 성산리(城山里), 수월  
리(水月里), 화남리(花南里), 온평리(溫平里), 난산리(蘭山里), 신산리  
(新山里), 삼달리(三達里), 신평리(新豐里), 신평리(新坪里), 신천리(新  
川里), 하천리(下川里), 성읍리(城邑里),

## ○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의 변천

정의면(旌義面) : 성산리(城山里), 고성리(古城里), 오조리(吾照里), 시흥리(始  
興里), 수산리(水山里), 온평리(溫平里), 난산리(蘭山里), 삼달리(三達  
里), 신산리(新山里), 신평리(新豐里), 신천리(新川里)

이 마을 명칭은 오늘의 법정리와 일치한다.

19세기말에 종달리는 정의군 좌면에서 제주군 좌면으로 이관 되었다.

그 후 좌면이 된후 성산읍의 연혁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 ○ 1906년(광무10) 9월 21일 좌면 풍헌을 좌면 면장으로 개칭하였고 약정(約正).

직월(直月)을 폐지하고 영수원(領收員), 서기(書記)를 두었다.

○ 1910년 10월 공포된 면에 관한규정에 따라 면장을 관임관대우 국가관리로 임  
용하였고, 그 사무소를 고성리에 개설하였다.○ 1914년 3월 1일 정의. 대정 양군이 제주군에 통합되어 전라남도 제주군이 되  
었고 좌면을 정의면으로 개칭하였다.

## ○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하천리와 성읍리는 동중면으로 이관 되었으며

## ○ 1915년 5월 1일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정의면이 되었으며

- 1912~1918년까지 해안변을 따라 일주도로 개설로 행정, 경제, 교육의 중심 기능은 일주도로변으로 점차 옮겨졌다.
- 1934년 정의면사무소를 고성리에서 성산리로 이전하였다.
-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면의 명칭을 소재지 마을 이름을 따서 성산면으로 개칭 하였다.
- 1946년 8월 1일 도제(道制)실시에 따라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면이 되었다.
- 1951년 12월 31일 신산리에 성산면신산출장소를 신설하였고
- 1961년 9월 1일 면사무소를 성산리에서 고성리 322-3번지로 이전하였다.
- 1980년 12월 1일 성산면이 읍으로 승격 하였고
- 1982년 5월 24일 면사무소를 고성리 1023-2번지로 이전하였다.
- 2004년 7월 1일 신산출장소가 폐지되었다.
-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0조 및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행정시) 성산읍이 되었다.

2009년11월 말 현재 성산읍의 면적은 107.67km<sup>2</sup>이며 인구는 14,381명이다. 지역내 법정리는 11개리이고 행정리는 14개리이며 자연마을은 29개이다. 성산읍의 법정리와 행정리는 다음과 같다.

법 정 리	행 정 리
고성리	고성리, 신양리
성산리	성산리
오조리	오조리
시흥리	시흥리
수산리	수산1리, 수산2리
온평리	온평리
난산리	난산리
신산리	신산리
삼달리	삼달1리, 삼달2리
신평리	신평리
신천리	신천리

## 1. 고성리의 설촌유래

고성리는 성산읍사무소 소재지의 마을로 동쪽은 일출봉이 솟아있는 성산리와, 동북쪽은 오조리, 서북쪽은 수산리, 남쪽으로는 신양리, 서쪽은 온평리에 접해 있다.



고성리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1200년대의 고려조 때로 봐야 할 것이다. 여몽(麗蒙)연합군에 의해 삼별초군이 패한 후 원의 조정에서 제주도를 목마장으로 삼은 것은 1277년(고려 충렬왕 3) 부터였다. 이후 제주는 100년 동안 원나라의 목장이 되는데, 당시 고성리를 포함한 수산평도 이들의 목장이었다.

조선조 효종 때 제주 목사를 지내었던 이원진(李元鎭)이 1653년(효종 4)에 쓴 <탐라지>에 의하면 ‘옛 정의현은 현 동쪽 27리에 있다. 원나라 목자 합적(哈赤)이 여기서 본주의 만호(萬戶)를 살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1271(고려조 원종 12) 5월에 삼별초가 진도의 용장성(龍藏城)이 함락되자 잔여 병력과 통수권을 이어받은 김통정(金通精) 장군이 제주에 들어왔다. 때를 같이하여 남해현(南海縣)을 점거해 있던 유존섭(劉存燮) 장군도 김통정 장군이 제주에 입거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선 80여 척을 이끌고 들어왔다. 김통정 장군은 먼저 여몽연합군의 공격에 대비하여 방어시설을 착수하였는데 성산포에 외성을 쌓고 고성리쪽에 내성을 쌓아 이 곳을 본진으로 삼았으나 지리적으로 한 쪽에 치우치고 상륙하는 여몽군과 접전하는데 불리하다고 느껴 귀일촌(貴日村) 향파두리로 옮겨갔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을 미루어 보면 고성리의 설촌 연대를 1200년대 고려시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5)</sup>

1416년(조선 태종 16) 5월에 도안무사(都按撫使) 오식(吳湜)과 전관관 장합(張合)의 계청에 따라 산남의 200리 땅을 양분하고 동에는 정의현, 서쪽에는 대정현을 두었다. 그 당시 치소는 고성리에 두었는데 위치가 현의 동쪽에 치우쳐 있고 해변에 너무나 가까워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가 용이치 않았다. 그래서 1423년(세종 5) 도안무사 정간(鄭幹)과 판관 최치렴(崔致廉)이 정의현성을 진사리(晋舍里:城邑里)로 옮겼다.

고성리의 옛 이름은 고성(古城)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 38, 정의현, 고적)에 고성(古城)/옛성, 탐라순력도에 구수산(舊首山)/옛수산, 제주삼읍전도와 정의군지도 등에 상고성리(上古城里:웃고성마을), 하고성리(下古城里:알고성마을)이라 했고 정의읍지에 고성리(古城里:고성마을)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sup>6)</sup>

구전에 의하면 고려조(1259~1274)에 지금 고성리의 속칭 ‘장만이동산’ 부근에 현씨가 처음 설촌하였다고 전해지나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고 당시 현씨 자손도 이 마을에 거주하지 않아 확인할 방법이 없다.<sup>7)</sup>

그 이후 ‘간돈지’ 일대에 군위오씨가 살았으며, 경주김씨, 동래정씨, 남양홍씨 등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커졌다.

고성리 마을은 ‘가마’, 남작(南昨), ‘남정리’ 등으로 불리워지다가 고려조 원종 때 삼별초군이 상륙하여 방어시설을 갖추면서 석성(石城)을 마을 주위에 쌓아 이를 백산성(白山城)이라 했는데, 조선조 태종 2년에 정간(鄭幹)목사가 옛성터가 있는 마을이란 뜻으로 『고성리(古城里)』라고 이름지었다고 한다. 또한 이 일대에는 왜구들의 침입이 잦아 한 번은 이들의 침입을 받고 성이 괴멸된 적이 있어 『괴성리』라고 불리운다는 설도 있다. 지역주민들은 두 이름을 두루 사용한다.

이 마을에서 처음 살기 시작한 때는 대략 서기 1200년 대 고려조 말기로 보고 있다. 원나라가 『수산평』에 목장을 만들면서 거주자들이 생겨났다고 한다. 1416년(조선조 태종 16) 5월에 제주가 삼읍으로 분할되면서 『고성리』는 정의현청의 소재지가 된다. 그러나 바다가 가까워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가 용이하지

5) 성산읍지 P.948, 남제주군 성산읍, 2005

6)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 연구 P.346~347, 2004

7) 성산읍지 P.948, 2005

않다 하여 진사리(지금의 표선면 성읍리)로 옮겨지고 이후 1609년에는 정의현 좌면 면역소 소재지가 되었다가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 이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좌면은 정의면(旌義面)으로 변경되었고 1915년에는 제주도(濟州島) 정의면이 되었다.

1933년에는 행정리 ‘고성리 1구’, ‘고성리 2구’로 나뉘었다.

1934년에는 면사무소를 성산리로 이전하였고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라 정의면을 성산면으로 개칭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濟州道) 남제주군 성산면 고성리가 되었고, 1951년 4월에는 고성1구를 고성리로, 고성2구를 신양리로 정하였다. 1961년 9월에 면사무소를 성산리에서 고성리로 옮겼고 1980년 12월 1일 성산면을 읍으로 승격함과 동시에 1982년 4월 고성리 현재의 위치에 읍사무소 청사를 준공하였다.

현재 고성리는 큰동네, 장만이동, 동남동(東南洞) 등 3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1980년 12월 1일자로 성산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성산읍 고성리가 되었다.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고성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가 되었다.

## ○ 고성리의 전설

### <고성리 홍효자>

조선조 헌종(憲宗) 때에, 고성리에 홍 효자(본명 洪達漢)가 살았다. 그는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 봉양에 칭송이 자자했다.

홍 효자는 아버지가 병환으로 눕게 되자 침식을 잊고 구병에 힘썼다. 당시 제주백성들은 가난하여 이부자리마저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던 때였다. 홍 효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버지가 눕게 되자, 홍 효자는 있는 힘을 다하여 좋은 이부자리를 하나 마련했다. 그래서 아버지 방안에 이부자리를 깔아 모시고, 자신

은 갓옷을 입은 채 마루바닥에 자면서 구병을 계속했다.

구병하면서 홍 효자는 똥을 맛보았다 한다. 아버지의 똥은 날이 갈수록 단맛이 더해 갔다. 홍 효자는 ‘똥 냄새가 낫어야 사람은 오래 사는 법인데, 똥 냄새가 단것을 보니, 속히 세상을 떠나실 것 같다.’면서 양천통곡(仰天痛哭)했다.

홍 효자는 또 살생(殺生)을 아니했다.

아버지 구병을 하는 데에, 갓옷을 입은 채 마루 바닥에 몇 달이고 지내자니 이가 몹시 생겼다. 목욕을 아니함은 물론, 머리도 빗지 않고 오직 아버지 병환만을 걱정하는 것이니 이가 일 것은 당연하다. 어찌나 이가 많이 일었는지 갓옷의 바느질 틈마다 이가 박혔다.

어느 따뜻한 봄날, 홍 효자는 아버지의 병환도 차도가 있자 양지 바른 마당 구석에 앉아 이를 잡기 시작했다. 이를 잡는다고 해도 실은 죽이는 게 아니라, 털발의 틈새마다 허영게 기어 다니는 이를 하나하나 주워서 땅바닥에 조심조심 놓아주는 것이었다. ‘이라고 한들 살생을 해서 되겠느냐’는 것이다.

이때 마침 말총장수가 말총을 사러 들어왔다. 말총장수는 제주도의 말총을 가가호호 돌아다니며 사 모아 가지고 육지로 내어다 파는 행상꾼이었다.

말총장수는 홍 효자 집 마당에 들어서 홍 효자가 이 잡는 것을 한참 들여다 보았다. 세상에 이렇게 이가 많이 일 수도 없으려니와, 이 잡는 방법이 하도 걸작이어서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말총장수는 이렇게 우둔한 인간은 한 번 골려 주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 여보시오. 그 많은 이들을 어찌 하나하나 잡아 댁니까? 한꺼번에 없애는 방법이 있지요.”

“어찌하면 이를 한꺼번에 없앨 수 있습니까?”

말총장수는 갓옷을 시루에 넣어서 찌면 이가 한꺼번에 없애질 것이 아니냐고 가르쳐 주었다.

홍 효자는 그렇게 효성이 지극하고 살생을 아니하는 사람이었지만 인품이 순박해서 말총장수의 조롱을 알아채지 못했다. 갓옷은 시루에 넣어 찌면 윤기가 다 빠져서 구워 놓은 오징어처럼 되어 다시 입지 못하는 것을 몰랐다.

홍 효자는 곧 부인을 부르고는 ‘이 갓옷을 시루에 담고 찌버리지요 이들이 없

어지게.’하며 옷을 넘겼다.

저넨 옷을 보니 영영 입지 못하게 되어 버렸다. 이것을 보자, 흥 효자는 크게 탄식을 했다.

“하, 그거 공연한 놈 말을 들어서 이 다 죽여먹고, 기죽웃도 못 입게 되어 버렸네!”

이렇게 매일 탄식을 하는데, 말총장수는 말총을 사 거두어서 육지로 나가려고 배를 놓았다. 풍파가 세어서 떠날 수가 없었다. 조금 바람이 잔잔해진 것 같아서 배를 놓으면 곧 풍파가 일어 돌아오곤 하는 것이었다. 석달 열흘을 기다려도 바람은 자지 않았다.

말총장수는 하도 답답해서 점쟁이에게 가서 문복(問卜)을 했다. 점쟁이는 ‘천하대효(天下大孝)의 마음을 거슬러 놓은 죄 때문이라’고 했다. 그제야 말총장수는 흥 효자를 조롱한 죄를 깨치고 흥 효자를 찾아갔다. 너뵈이 큰 절을 하고 ‘잘못했사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하고 사죄를 했다.

그리하여 흥 효자의 마음을 풀어 놓은 후에야 순풍(順風)이 일어 배를 띄워갈 수가 있었다 한다.

이 뿐만 아니라 흥 효자는 제사에 쓸 고기라도 살생을 피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제사가 돌아오면 곧은 낚시를 가지고 고기잡이를 나갔다. 곧은 낚시에 물러오는 고기는 제사에 쓰라고 하늘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제상에 올렸다. 제사때가 되면 곧은 낚시에도 꼭꼭 쓸 만큼의 고기가 잡혔다. 일설(一說)에는 바닷고기를 산 채로 물그릇에 넣어 제상에 올렸다가 제사가 끝나면, 다시 바다에 놓아 줬다는 얘기도 있다.

1704년(숙종 30)에 효자로 정표(旌表)되었다. 1720년(숙종 46)의 국장(國葬)을 당하자 스스로 백랍(白蠟)을 채취하여 초를 만들어 바쳤으나 나라에서 받아주지 않았다. 흥 효자는 ‘도랑쉬(月郎峰)오름’ 꼭대기에 단을 쌓고 그 초에 불을 붙여 북쪽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추모의 정을 다하였다. 이러한 행적이 조정에 알려져 1746년(영조 25)에 왕명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의 교지를 내렸고, 그 후에 또 가선대부(嘉善大夫)의 교지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의 관직을 내렸다. 이 정려문 전면에는 ‘忠孝 同知中樞府事 洪達漢之間’ 라 쓰여 있고, 1749년(영조 25) 11월에 세워졌다. 한편 흥 효자비는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526번지 수산리 동쪽 구한길 도로

변에 세워져 있다.

## 2. 성산리의 설초유래

성산리는 제주도의 동남쪽에 위치하며 성산일출봉이 우뚝 솟아있는 마을이다. 오래 전에는 썰물이 되었을 때만 고성리와 왕래가 되는 섬과 같은 지형이었으나 1940년 터진목을 매립하여 제주 본섬과 연결시켰다.



성산리 설초에 관한 문헌이나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구전이나 일출봉과 성산포항에 관한 기록에 근거하여 추정해 볼 수 밖에 딴 방법이 없다.

성산포에 처음 사람이 왕래하였다는 기록으로는 일본인 진수길상(津守吉祥)이라는 사람이 당나라에 특사로 갔다 백제를 거쳐 귀국하는 도중에 풍파를 만나 성산포구에 표착한 일이 있는 후 일본인들의 왕래가 있었다는 내용과 중국 원나라 홀필렬(忽必烈)이 1200년 일본을 칠 때에 성산포에서 발진하여 공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8)</sup>

그리고 1271년(고려 元宗 12)에 삼별초가 제주를 점거할 당시 김통정(金通精) 장군이 성산(城山) 북쪽에 토성을 쌓았다고 전해진다. 그 후 1439년(世宗 21)에는 성산(일출봉)에 봉수대를 쌓고 별장(別將) 6인, 봉군(烽軍) 12인을 배치하여 왜구를 감시하였다. 1601년(宣祖 34) 안무어사(按撫御使)로 제주에 파견되었던 김상헌(金尚憲)이 쓴 남사록에 보면 김상헌은 그 해 10월 13일 성산 진해당(鎭海堂)에 유숙하였다.

8) 제주도지, 제주도, 1982.

그는 수산방호폐성과 원의 목양지인 수산평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성산토성에 대하여는 길이가 2,000척, 높이는 9척으로 성내에 수만명을 수용할 만하다고 하였다.

이 성은 1597년(宣祖 30) 이경록(李慶祿) 목사 때 쌓았다. 그리고 성산을 오르내리는데 이따금 잔도가 가설되어 있고 1579년경 이경록 목사 재직시 성중에 절을 창건하고 승려가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1702년(肅宗 28)에 이형상(李衡祥) 절제사(節制使)가 삼읍을 순력하면서 그린 탐라순력도에 성산관일(城山觀日)을 보면 진해당구지(鎭海堂舊址), 봉천수(奉天水), 성산망(城山望) 등이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 마을 원로들도 일출봉 분화구 안과 우뚝개 함몰지 등에서 발견되는 기왓장등으로 미루어 보아 오래 전부터 사람이 거주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남사록이나 탐라순력도 등을 참조하면 적어도 400여 년 전에 설촌된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산리에 처음 정착한 가문의 족보나 구전으로 미루어 보면 본격적으로 마을이 형성된 것은 1800년대 초반인 것이 확실해 보인다.

성산리에 가장 먼저 입촌한 이는 1818년대로 제주 고씨 중시조 영곡공 고득중(高得宗) 14대 손자인 고연손(高連遜)과 15대손인 상호(尙好) 부자가 구좌읍 김녕리에서 이주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부터 1830년까지 비슷한 시기에 청주한씨 한기종(韓基宗)이 구좌읍 김녕리에서, 군위오씨 오형(吳滢)이 구좌읍 상도리에서, 거창신씨 신의범(愼義範)이 조천읍 신촌리에서, 연주현씨 현여락(玄汝洛)이 성산읍 신천리에서 속속 이주, 삶의 터전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sup>9)</sup>

성산리의 옛 이름은 청산(靑山)/성산리(城山里)이다. 민간에서는 성산을 청산(靑山)으로 부르기도 한다. 옛날 이 일대에 숲이 울창하여 사람이 출입할 수 없을 정도로 짙푸렀던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1597년(조선조 선조 30)에 이경록(李慶祿) 목사가 수산성에 있던 수산방호소(水山防護所)를 이 곳으로 옮겨 고려조 말기에 삼별초난에 의해 조성된 토성을 개보수하여 성산진의 성을 쌓을 때 관사(官舍), 즉 공해(公廡)를 지으면서 수많은 나

9) 성산읍지 P.864~865, 남제주군 성산읍, 2005

무를 별목하였다 한다. 그래도 동백, 두충, 적을 등이 울창하여 청산이란 이름을 지켰다. 정조 때인 1780~1789어간에 간행된 제주읍지와 그 부속의 대정현지, 정의현지 각 방리조에는 정의현 좌면에 성산리가 표기되지 않았다.<sup>10)</sup>

1872년 제주삼읍전도 등에 성산리로 나타나 있다.<sup>11)</sup>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된 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제주군에 예속되었고 좌면이 정의면(旌義面)으로 변경되었다.

1915년 제주도(濟州島) 정의면에 속하였고 1934년에는 면사무소를 고성에서 성산리로 이전하였다.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정의면을 성산면으로 개칭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濟州道) 남제주군 성산면 성산리가 되었다.

1949년 1월 18일 성산리에 제4구 경찰서가 신설되어 성산, 구좌, 표선면을 관할하였고 동년 2월 13일 제4구 경찰서는 성산포경찰서로 개칭하였다.

1957년 7월 26일 성산포경찰서가 폐쇄됨에 따라 성산지서로 격하되었다.

또한 1961년 9월에는 면사무소를 성산리에서 고성리로 이전하였다.

현재 성산리는 오정개와 수마포 등 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1980년 12월 1일자로 성산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성산읍 성산리가 되었다.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성산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가 되었다.

10) 제주도지 1권P.921~922, 제주도, 1993

11)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 연구 P.341~342, 2004

### 3. 오조리의 설촌유래

오조리는 제주의 동남부에 위치한 마을로서 북쪽에는 시흥리, 서쪽에는 고성리와 접하고 있다.

마을 동편에 푸른숲으로 덮여있는 식산봉이 솟아 있고 동쪽바다 너머에는 우도가 보이고 동남쪽에는 일출봉이 있다.



오조리 392번지(현 성산고등학교 북동쪽 바닷가)에는 1439년(世宗 21)에 오소포(吾召浦)연대를 쌓았고, 별장(別將) 6인, 직군(直軍) 12인을 배치하여 왜구의 내침을 감시한 일이 있었다.

그 연대에서 식산봉쪽으로 바다를 끼고 성곽의 흔적이 있으며 고려시대 기와와 자기의 파편이 많이 널려있다. 지금의 ‘안카름’일대에는 ‘절터’, ‘창터왓’, ‘연대밭’, ‘마재포’ 등의 지명이 있으며 이 부근에서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자기편들이 발견된다.

기단석(基壇石)으로 보이는 석재 유물이 밭담 속에 묻혀 있는데 이로 미루어 오조리에는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보아진다. 또한 1653년 이원진(李元鎭)의 「탐라지(耽羅誌)」에 의하면 “오조포(吾照浦)는 정의현 동쪽 35리에 있다. 어부의 집이 10여 호 있는데 겨울과 봄에는 와서 살고 여름이 되면 옮겨 간다. 대개 우도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나 가축이 떠들면 반드시 큰 바람이 불어서 나무를 뿌리채 뽑아놓고 농작물을 해치는 고로 정착하여 살 수 없었으나 지금은 자연히 부락을 이루어 겨울에 오고 여름에 떠나는 일이 없다.”고 하였다.

1601년 김상헌(金尙憲)에 의해 쓰여진 「남사록」 “지지(地誌)에는 그 아래 오

조포(吾召浦)에 어부의 집 수십 호가 있는데 겨울과 봄에 와서 살고 여름에 떠나 간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런 역사의 기록으로 보면 오조리 설촌은 600여년이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sup>12)</sup> 처음에 제주부씨와 은진송씨가 들어와 살았고 그 후 오씨, 강씨, 김씨, 홍씨, 현씨 등이 입주하면서 마을은 차차 확장되어갔다.

오조리의 옛 이름은 ‘오졸개’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정의현, 관방)과 『남사록』(권3)에는 오조포(吾召浦 : 오졸개)로, 『탐라순력』에는 오조포(吾照浦), 오조촌(吾照村), 식산포(食山浦 : 밧밧개), 『호구총수』에는 오소리(吾所里), 『제주삼읍전도』와 『정의군지도』 및 『정의읍지』에는 오조포(吾照浦), 오조리(吾照里)로 표기되다가 19세기 후반에는 정의현 좌면 오조리(吾照里)로 굳어졌다.<sup>13)</sup>

오조촌(吾照村)/오조포(五照浦)/오조리(吾照里), 이 마을은 고려조 말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조선조 성종 무렵에는 『안가름』에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오조촌(吾照村)』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왜구의 침입이 잦아 다시 『새가름』으로 옮겨 앉았다고 한다. 조선조 세종조에 이웃마을인 고성리에 정의현청이 들어서면서 이 곳에는 수전소(水戰所)를 두니 관리들과 군인들이 많이 거주했다고 한다. 오조포(吾照浦)는 한때 이 마을의 이름으로도 불리워졌으나 지금은 마을의 중심 포구를 일컬으며 성산항과 마주한 어항이다. 이 마을의 이름 오조(吾照)는 성산 앞바다 일출봉 건너에서 떠오른 해가 햇살을 퍼뜨릴 때 먼저 와 닿은 마을이라 하여 지어진 것이라 한다.

이 마을은 오래전부터 조선술에 능한 목수들이 많았고 또 어로행위도 활발하여 온갖 선박들을 제조했던 곳이기도 하다. 덕분에 제주의 다른 바닷가 마을에서는 이미 잊혀 졌거나 아예 사용한 적도 없는 <적판>이며 <쌈판> 배 등에 관한 자료를 구전으로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이 마을은 제주섬의 동쪽 어촌으로서 잠수(潛嫂)들이 주로 배를 타고 나가 어장에서 조업하는 <뱃물질>이 성행하는 곳이기도 하다.

1915년 제주도(濟州島) 정의면에 속하였으나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변

12) 성산읍지 P.892~893, 남제주군 성산읍, 2005

13)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 연구 P.343~344, 2004

경에 따라 정의면을 성산면으로 개칭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濟州道) 남제주군 성산면 오조리가 되었다.

1980년 12월 1일자로 성산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성산읍 오조리가 되었다. 현재 오조리는 상동과 하동 등 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오조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가 되었다.

## ○ 오조리의 전설

### <도훈장 오봉조(吳鳳祚)이야기>

훈장 오봉조(1730 영조 6~1815 순조 15)는 성산읍 오조리에서 태어났으며 본관은 군위이다. 아버지 오후찰(吳厚札)과 어머니 김해김씨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일찍이 모친과 사별하고 계모 청주한씨의 인자한 가르침으로 문장과 시조창으로 이름을 날렸다. 여러차례 문과에 응시했으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정의서당의 훈장을 지냈는데 출장한 제자들을 배출시켰다. 그 대표적인 제자는 다음과 같다.

오봉조 훈장이 겪은 유년기 일화가 전해진다.

오봉조 훈장은 이 마을 서북쪽 대왕산(大旺山) 기슭 그의 무덤의 비문(고명학이 짓고 문성표가 썼음)에 의하면 1730년(영조6)에 태어나서 1815년(순조 15) 6월 17일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다.

그의 나이를 따져 그는 대체로 지금으로부터 271년 전쯤에 활동을 시작한 사람이며, 여기 소개하는 전설도 그의 나이 6세인 150년 전쯤의 이야기가 된다.

오훈장은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었으므로 계모 밑에서 자랐다. 그런데 그 계모

는 여느 계모와는 달리 대단히 현명하고 인자한 여자였다. 그 여자는 양반집 태생이었으나 전실 자식을 키우기 위해 오조리에 온 후부터는 무래질(해녀질)을 배우고 바다엘 다녔다.

하루는 계모가 마당에 곡식을 넣어 놓고 바다에 잠수질을 나가면서 선생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아들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라’하고 당부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가정교사 격인 선생도 그녀가 들여왔던 것이었다.

그런데 그 날 오후에 억수 같은 소나기가 쏟아지자, 무래질하던 계모는 바다에서 급히 돌아왔다. 그러나 널었던 곡식은 이미 말끔히 들여진 다음이었다.

계모는 독선생과 아들을 불러 앉히고 호되게 나무랐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지, 누가 곡식을 들이라고 했느냐는 꾸중이었다.

“젖은 곡식은 다시 말리면 되지만 흘러가 버린 시간을 보상할 수야 없지 않느냐?”는 질책이었다.

오훈장과 선생은 크게 깨닫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마침내 도훈장까지 올랐다.

그가 도훈장이 된 후 몇 해 안되어 그의 계모가 세상을 떠났다. 오훈장은 엮드려 통곡하고 상복을 입고 상주 노릇을 하였다. 당시의 예법으로는 계모에게 상주 노릇을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고장령, 부정랑같은 제자들이 부당하다고 말렸으나 그가 나서서 말했다.

“내 친어머니는 나를 낳고 바로 죽었다. 그 후 오늘 돌아간 계모가 나를 기르고 가르쳐 오늘의 나를 있게 했으니 그 기른 정이 오죽하겠느냐? 이런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해서 상주 노릇을 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다.”

이에 제자들은 스승의 인품을 더욱 우러르고 따랐다고 한다.

오훈장은 도훈장 당시 ‘정의서당 흥학발(旌義書堂 興學跋)’을 써서 제주도의 인재등용을 적극 진정하였다고 한다.

#### 4. 시흥리의 설촌유래

시흥리는 서귀포시 맨 동쪽에 있고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마을 뒤편에 두산봉(斗山峰)이 자태를 뽐내고 동쪽으로는 바다 건너 우도(牛島)가 자리 잡고 있다.



이 마을이 설촌된 것은 약

500여 년 전으로 알려져 있다. 일설에 의하면 촌락이 형성되기 전 1450년 경 시흥리의 상징인 두산봉(옛 이름 멀미) 남쪽 대섬머세(竹磊와 貝塚이 남아있다)에서 한씨 또는 이씨가 살기 시작하면서 갈(葛 또는 골)씨가 들어와 살았고, 갈씨는 물을 찾아 대선못(지금은 매립되었음) 부근의 ‘갈가 집터’로 이주했다고 전해진다.

그 후, 지금으로부터 350여 년 전 바다에서 바닷고리나 해조류 등을 얻기 위해서 이씨가 현재의 667번지에 이주해 왔고 구좌읍 하도리에서 부씨(서자 부대봉)가 들어와 이씨와 같은 집에서 동거하다가 부씨는 666번지에 옮겨 살았다 하며 이씨의 자손은 번성을 못했지만 부씨의 자손은 번성했다 한다.

같은 연대에 하동 속칭 남가물 동네 910번지에 한씨가 살았다 하며 뒤를 이어 강씨가 527번지에, 하동 905번지 당밭에는 현씨가, 상동 758번지에는 다른 현씨가 살았다. 그 후 다른 성씨들이 속속 입주해 마을이 형성됐다고 한다.

당시 마을의 통치는 대씨족에서 도맡았으며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씨족간 파벌이 생겨나고 세력다툼과 힘자랑 같은 완력으로 다스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지혜를 모아 향약을 제정하고 집회를 개최 주민의 결의에 의했지만 역시 벌족의 대표

자가 마을의 대표가 되었다.

마을의 행정은 영이뜸(尊里), 공원(公元), 경민장(警民長), 기찰장, 동장, 자주(소임)를 두어 행해졌다. 이제(里制)가 실시되자 구장이 마을 행정을 총괄하였으며 마을 자체적으로 호적이 정리되었다.

마을명이 심돌이라는 것은 이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개가 힘이 센 탓이며 마을 곳곳에 ‘산돌(깊이 박혀 있어서 파낼 수 없는 돌)’이 산재해 있어서 자연발생적으로 ‘심돌(力厓)’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이런 탓인가 모르지만 이 마을에는 장사에 대한 전설이 다른 마을에 비해 많은 편이다.

시흥리라 불리워지기 시작한 것은 1905년, 채수강(蔡洙康) 정의군수 당시 정의현의 처음 마을이라는 뜻에서 정의군 좌면 시흥리(始興里)라 하였다. 이 때 마을의 규모는 150여 호였다.<sup>14)</sup>

문헌에 나타난 마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789년 호구총수에 역돌리(力厓里), 18세기 말 제주읍지의 삼읍 방리조에 역석을리(力石乙里), 1872년과 1904년의 제주목 삼군호구가간총책에는 역돌리(力厓里)로 1914년에는 현재와 같이 시흥리(始興里)로 표기 되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된 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제주군에 예속되었고 이 때 좌면이 정의면(旌義面)으로 변경되었다. 1915년 제주도(濟州島) 정의면에 속하였으나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정의면을 성산면으로 개칭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濟州道) 남제주군 성산면 시흥리가 되었다.

1980년 12월 1일자로 성산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성산읍 시흥리가 되었다. 시흥

---

14) 성산읍지 P.924~925, 남제주군 성산읍, 2005

리는 현재 상동과 하동 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시흥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가 되었다.

## ○ 시흥리의 전설

### <장사에대한 전설 심돌 부대각>

심돌(시흥리의 옛이름)에 ‘부대각’이라는 장사가 있었다. 그의 아들도 또한 힘이 세여 ‘부주사’라 불렸다. 아버지 부대각은 경사생이고, 아들은 갑자생이었다.

부주사도 몸집이 워낙 커서 소소한 문으로는 출입을 못하였는데, 아버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세인이 ‘호부견자(虎父犬子)’라 했으니 부대각의 풍채는 가히 짐작할 만하였다.

부대각은 심돌 동네 어귀에 살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집 곁 큰 팽나무 밑에 나와 기침을 ‘어험’한다. 그러면 심돌 상하 동민들은 누구나 그 기침 소리를 알아들었다. 그만큼 음성도 컸던 것이다.

부대각은 심심하면 거리에 나와서 ‘우리 추렴하주’하여 그 나이 또래 벗들과 돼지를 잡아서 먹었다. 추렴이란 몇이서 돈을 모아 돼지 따위를 잡아 갈라 먹는 일이다. 부대각이 제안하면 그의 벗들은 거절하는 법이 없었다. 그래서 돼지가 크든 작든 간에 서너 명이 앉으면, 그 자리에서 말끔히 먹어 치웠다. 아마 반 이상은 부대각이 먹었을 게 분명하다.

부대각은 아들을 데리고 육지 장사를 자주 다녔다. 미역을 싣고 가 팔고 쌀을 사 오는 것이었다.

어느 해 강경(江景) 장관에서의 일이었다. 부대각은 어디 가도 그랬지만, 강경 장관에서도 좀 거만하게 설치고 다녔다. 힘이 세니 무서운 데가 없어 그럴 법

도 하였다. 강경 사람들은 저게 누구인가 하다가 제주 사람임을 알았다.

“제주 섬놈이 거만하다!”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으고는 부대각을 단단히 혼내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20여 명이 꿈무니마다 방망이를 차고 부대각이 머무는 주막에 몰려 들었다. 먼저 겁이 난 건 주인이었다.

“부선달, 몸을 좀 피하시오. 위험합니다.”

“사람이 한 번 나면 죽는 법. 그들 소원이 꼭 나를 죽이고 싶다면 소원대로 하게 내 버려 두시오.”

부대각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듣고 아들 부주사가 문 밖으로 나갔다. 아들은 이 때 열아홉 살이었다.

“이번만 아버지를 살려 주십시오. 다시는 거만한 짓을 안하시도록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부대각은 아들이 뭘하러 나가려고 했더니, 사정하고 있는 것이었다. 화가 울컥치밀었다.

“못된 자식하곤. 그까짓 놈들에게 빌면서 목숨을 살아서 뭇할 것이냐!” 야단을 쳤다. 청년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나를 때려 죽이고 싶거든 저 바깥으로 끄집어 내어서 죽여라. 집안에서 때려 죽이면 주인에게 폐가 되지 않느냐!”

부대각의 말에 청년 오륙 명이 방안으로 들어오더니, 양쪽으로 갈라서 부대각의 팔을 잡아 끌었다. 부대각은 등을 벽에 딱 붙이고 끄떡도 하지 않았다. 한참동안 온 힘을 내어 끌었으나 청년들은 부대각의 등을 벽에서 떼어 낼 수가 없었다.

이것을 보던 어른 한 사람이 청년들을 만류했다.

“너희들 대여섯이 벽에 붙인 등도 떼지 못하는데, 만일 저 양반이 힘을 낸다면 너희들은 다 죽을 거 아니냐.”

청년들은 슬금슬금 물러서서 사과를 했다.

부대각은 사과를 받아 들이고, 덕분에 그 청년들을 시켜 미역을 수월히 팔고 쌀을 사 신고 돌아오게 되었다.

배를 놓아 섬 하나 안 보이는 바다에 온 때였다. 수적(水賊) 배가 나타났다. 수적을 만났다고만 하면 물건을 다 빼앗기는 것은 물론, 목숨까지 잃을 판이었다.

벧사공들은 새파랗게 질려 버렸다. 부대각은 짐짓 모른 체하고 ‘웬일이냐?’하고 큰소리를 쳤다.

“목숨이 아깝거든 그 무곡(貿穀)을 다 이 배로 옮겨 실어라.”

수적들의 호통이었다. 부대각은 벌떡 일어서며 배 닻을 잡아 ‘복’ 무질러 끊어 허리에 톱 묶었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쌀 먹서리를 확확 잡으며 공 던지듯 수적의 배로 내던졌다. 수적의 배가 나뭇잎 출렁이듯 출렁이며 금방 침몰할 것 같았다.

그제서야 수적들이 새파랗게 질려서 ‘목숨만 살려 주십사’고 빌었다. 부대각은 도리어 수적 배의 물건까지 빼앗고 돌아왔다고 한다.

지금도 지역의 어르신들은 시흥리를 ‘심돌’이라 부른다.

## 5. 신양리의 설촌유래

신양리는 고성리와는 같은 법정리이고 고성리 일주도로변에서 700m 남쪽으로 내려간 해안마을이다. 1439년(세종 21)에는 고성리 57번지(신양리 접지코지)에 협자(俠子) 연대를 쌓고 별장(別將) 6인, 직군(直軍) 12인을 배치하여 왜구를 감시하였다.



신양리의 설촌은 지금으로부터 110여 년 전의 일이다 어로와 해조류 채취를 위하여 고성리의 정씨(鄭氏)와 김씨(金氏) 등이 이주해 와 움막을 짓고 살기 시작한 것이 설촌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앞바다에서 농사에 필요한 비료로 사용하는 돛북, 감태 등 해조류가 많이 생산되고 해변이 넓기 때문에 어업에 종사하기에 편리한 관계로 다른 마을에서 이주하는 주민들이 많아졌다.

신양리의 옛이름은 ‘접재개’와 ‘방뒷개’다. 「중종실록」 5년 9월(기사)조에는 수산포(水山浦:물밧개)로, 「남사록」 권3에는 협재포(俠財浦:접젧개, 접젧개)로, 「탐라순력도」와 「탐라지도」 등에는 협재포(俠才浦)로, 「호구총수」에는 고성리(古城里), 신양리(新陽里), 산양리(山陽里)로, 「정의읍지」에는 방두포(方頭浦:방뒷개)로, 「제주읍지」 정의현, 방리조에는 산양리(山陽里)로, 18세기 후반(1780~1789)에는 신양리(新陽里:새 해가 뜨는 마을)와 산양리(山陽里:산의 해)가 고성리와 함께 존재했었다.

신양리 마을은 조선조 말엽인 서기 1894년에 어로행위를 생활의 근간으로 하는 이들은 『고성리』에서 내려와 움막을 짓고 거주하기 시작한 것이 설촌의 시초였다. 그 후 천연적으로 조성된 수많은 포구를 이용한 어업이 활발해지면서 주민들의 생활이 윤택하니 많은 이들이 이주해와 마을이 형성되었다. 서기 1909년에는 『고성리』에 둔 조합장이 행정을 관장하였고 1915년 일제에 의해 도제(島制)가 실시되면서 정의면 고성리라 하였다가 1933년 고성리에서 고성리 2구가 되면서 자치행정리가 되었으나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한 지면을 공유하려 했다.

이 마을은 곡식을 수량으로 하는 말(斗)과 같이 우묵하게 생겼는데 머리쪽은 막히고 밑은 터졌다고 하여 『방두포(房斗浦)』라고 했고 주민들은 <방뒤>라 불렀는데 새로 신설된 마을이며 살기에 편하다고 하여 <신안동(新安洞)>이라 잠시 부르다가 해방이 됨과 아울러 새로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마을, 또 금방 떠오른 새해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마을이라 하여 『신양리로 바꾸어 오늘날에 이른다.』

19세기 중반에 발생한 고지도와 문헌에는 신양리와 산양리가 사라져버렸다.

일제 때에 50,000분의 1 지도에는 방두동(方頭洞:방뒫골), 방두포(方頭浦:방뒫개)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sup>15)</sup>

따라서 신양리는 19세기 중반부터는 정의현 좌면 고성리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1909년에는 입주자가 점차 증가하여 50여 호에 이르자 고성리에 속한 조합장(초대 조합장 鄭洪圭)을 두게 되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된 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제주군에 예속되었고 좌면이 정의면(旌義面)으로 변경되었다. 1915년 제주도(濟州島) 정의면 고성리에 속하였으나 1933년 고성리에서 분리하여 고성리 2구가 되었으며 초대 구장에 강세윤(康世潤)이 취임하여 자치적으로 마을을 운영하였다. 이 때부터 포제(醮祭)도 분리하여 지내게 되었는데 지금의 협자연대 서쪽에 포제터를 마련하고 국신지령(局神之靈)이란 신을 모셔 정월 본제(本祭)와 칠월 별제(別祭)를 행해 마을 주민의 안녕과 풍요로운 생활을 기원했다.

15)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 연구 P.348~350, 2004

세월이 흐르고 마을 주민의 삶이 윤택해지면서 마을 명칭을 바꾸어야 하겠다는 생각에 새로 형성되고 살기 편안한 마을이라는 뜻의 신안동(新安洞)이라 부르기도 했지만 1951년 4월 23일 마을의 고성리에서 행정리를 분리하면서 신양리(新陽里)라 칭하게 되었다.

1980년 12월 1일자로 성산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성산읍 신양리가 되었다. 현재 신양리는 동동과 서동 등 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신양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가 되었다.

## ○ 신양리의 전설

### <섭지코지와 선돌>

신양리에서 자라목처럼 동남쪽으로 뻗은 ‘섭지코지(협지곶)’ 북동쪽 해안가에 는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 있는 거대한 암석이 있다. 이를 두고 ‘선돌’ 또는 ‘왕자바위’라고도 한다.

이 거대한 기암은 높이는 약 30m, 둘레는 15m 정도인데 색깔은 흑회색으로 직립형(直立形)이다. 이 바위의 상층부는 ‘가마우지’라는 바다새가 서식하면서 배출해놓은 배설물로 온통 뒤덮혀 있어 멀리서 보면 마치 하얀 눈이 쌓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바위 이름이 ‘선돌’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서 있는 돌’이란 뜻이고 ‘왕자바위’라 불려지게 된 것은 이 거대한 기암에 슬프고 아름다운 전설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주 먼 옛날 이 곳은 선녀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목욕을 하는 곳이었다. 어느 날 동해 용왕의 아들이 목욕을 하면서 유희를 즐기는 선녀들을 지켜 보고는 그 녀들의 미모에 반해 이 곳으로 오게 되었다. 용왕의 아들은 선녀들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려고 물속으로 조심스럽게 다가 갔다. 유희를 즐기며 목욕을 하던 선녀들은 물 위로 어른거리는 검은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라 날개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하늘 나라로 올라가 버렸다.

하늘 나라 옥황상제는 흐트러진 모습으로 돌아온 선녀들을 보고 금족령을 내려 다시는 지상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렇지만 수려한 왕자의 모습을 본 선녀들은 왕자를 만나기 위해 지상에 내려가기를 간청했으나 옥황상제의 엄명은 단호해 아쉬움의 눈물을 남몰래 훔쳐야만 했다.

한편 왕자는 앓으나 서나 눈앞에 어른거리는 선녀들의 모습을 잊지 못해 매일밤 ‘섭지코지’를 찾아 들었어나 그녀들은 볼 수 없었고 출렁이는 파도소리만 들어야 했다.

그는 상사병에 몸져 눕고 말았다. 백약이 무효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름 시름 야위어가는 아들을 보는 부왕마저 자리에 눕게 되자 신하와 백성들의 걱정은 태산 같았다. 이 소식을 들은 충성스런 신하가 한 점쟁이를 찾아갔다. 점쟁이 왈, “왕자에게 이르시오. 매일 밤 자정이 되면 선녀들이 내려왔던 곳에서 백일기도를 드리도록 하시오. 그러면 백일 후 병이 나을 것이요.”

꿈 속에서 선녀들을 찾아 헤매던 왕자는 그 날부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은 흘러 이윽고 9십9이째까지 기도는 계속되어 하루를 남겨놓았다. 설레는 마음으로 한 나절을 보낸 왕자는 마지막 기도를 위해 용궁문을 나섰다. 그러나 이게 웬 조화인가 잔잔한 바다에 바람이 일더니 파도가 으르렁거려 한 치의 앞도 볼 수 없지 않은가. 바람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던 왕자는 파도를 헤치며 용궁을 빠져 나왔지만 집채만한 파도에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면서 섭지코지를 향해 걸음을 옮겼지만 역부족이었다. 갓은 고초를 겪으며 그가 기도처에 도착했을 때는 성산일출봉 뒤로 붉은 해가 하늘을 밝게 열고 달빛의 수레를 거두어 들고 있었다.

왕자는 ‘안돼!’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수레의 끝을 잡기 위해 바다를 받치고 뛰어 올랐다. 그러나 고작 30m, 그는 허공에서 손만 허우적거렸다. 이 광경을 하늘에서 본 옥황상제는 왕자의 애절한 사랑을 깨달았음인지 그 자리에 돌이 되게 하고 선녀들을 내려 보내 이 곳에서 목욕하게 했다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다.

## 6. 수산1리의 설촌유래

수산1리는 제주도의 동남부지역이고 고성리 중심부에서 3km 떨어져 있고 대수산봉(大水山峰) 북쪽에 형성된 중산간마을이다.

조선조 제주절제사(節制使)를 지낸 이원진(李元鎭)이 쓴 탐라지 제주목건치연



혁조에 따르면 1277년(고려 충렬王 3년) 원나라가 제주도를 지배할 당시(1273~1368 약 1세기간) 동서아막(東西阿幕)을 설치하고 다루가치(達魯花赤)로 하여금 몽골 말 160여 필을 제주도에 방목하게 하였다. 이를 관리하는 동아막은 수산평(현 수산2리 경 속칭 남다리 서남쪽 1km 지점)에 설치하여 목양(牧養)토록 하였다. 그 때 원의 기황후(奇皇后)가 탐라적(塔羅赤)으로 하여금 소, 말, 낙타, 나귀, 염소를 실어와 수산평에 방목하고 목호(牧胡)를 두어 감목(監牧)하게 하였다. 그 중에서도 수산평에는 말이 크게 번성하여 산야가 가득하였으니 명월포(明月浦)에서 원으로 반출하였다고 '탐라지'에 기록하고 있다. 원나라가 탐라를 지배하며 수산평에 말들을 방목할 당시 수산리에는 취락이 형성되고 연못 등이 시설되어 가축을 방목할만한 여건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유적들이 있는데, 수산 1, 2리 인근 지역에 방묘, 지석묘 등이 산재해 있으며 석기(石器)가 발견되기도 했다.

1439년(세종 21)에는 제주도안무사(濟州都 按撫使) 한승순(韓承舜)이 왜구를 방

비하기 위하여 수산진방호소(水山鎭防護所)를 설치하였다. 그 성의 둘레는 1,164척이고 높이는 16척 규모인데 군관(軍官) 3인, 서기(書記) 7인, 방군(防軍) 85인을 두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수산리 2039-1번지 대수산봉(大水山峰)에 봉수대를 쌓고 별장(別將) 6인, 봉군(烽軍) 12인을 배치하여 왜구를 감시하였다.

이로 미루어 설촌은 오랜 역사를 지니며 800여 년 전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다. 구전에 의한 설촌은 고씨, 문씨, 서씨, 임씨가 입주하여 살다가 수재, 한재, 풍재, 전염병 등으로 대부분 사망하고 일부에는 인근 마을이 형성되면서 이주했다고 전하여진다. 지금도 큰 동네 외곽지대에 고송이위원(高松伊圀園), 문무학동산(文武學童山), 임창희위원(林昌希圀園), 서상희위원(徐相希圀園), 서문창이왓(徐文昌이밭)이란 지명 등이 있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500여 년 전에 강(康)씨가 입촌했으며 그 후에 한씨, 오씨, 고씨, 김씨, 조씨 등이 입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sup>16)</sup>

물뫼/물미/수산리(水山里), 수산리의 이름이다.

구전에 의하면 이 마을의 설촌은 ‘남다리/남더러’라는 곳에 사람이 맨 처음 들어와 살면서부터였는데, 고려조 충렬왕(忠烈王) 때 서기 1277년에 ‘원(元)나라의 마소를 수산평(首山坪)에 목양(牧養)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본디 큰 「물뫼」를 <수산(首山)>으로 불렀으나 약 500여 년 전에 이르러 주민들이 물이 귀한 곳이라 이를 구하는 의미에서 「물뫼」라 했고 이를 후에 한자 표기화하면서 「수산(水山)리」라 표기했다.

마을 이름을 「수산(水山)」이라고 하게 된 것은 인(仁), 의(義), 예(禮), 지(智)와 인(仁), 지(智), 수(水)를 놓고 취하였던 때문이라고 한다.

수산리는 원래 수산(首山)이라 칭하였는데 수(首)는 우두머리임과 동시에 ‘처음’, ‘먼저’, ‘머리’ 등으로 쓰이고 ‘꾸벅거린다’는 뜻으로 양반이나 선비가 사는 마을이

16) 성산읍지 P.996~997, 남제주군 성산읍, 2005

름으로는 적정치 않다고 하여 수산(水山)으로 개칭하였다. 그 수산이라는 의미는 지자요수(知者樂水:지식이 많은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와 인자요산(仁者樂山: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의 ‘수(水)’자와 ‘산(山)’자를 따왔다고 한다. 그러니 어느 마을 명칭보다 아름답고 고상하다고 하였다.

그 후 19세기 중반에 수산리(水山里), 19세기 말에는 알물미(下水山里), 1905년 정의군 좌면 수산리라 하였다.<sup>17)</sup>

1896년 10호를 1통으로 하는 십호작통제가 시행되었고 그 당시 수산리는 수산2리와 황무술이(黃茂數)까지 한마을로 경민장(警民長:1894부터 경민장제 시행)이 관할하였다. 지금의 수산1리는 당시 22개통, 수산2리는 4개통, 황무술이는 1개통으로 도합 27개통이었다.

황무술이라는 지명은 수산리 중심에서 서쪽으로 5km 지점에 위치한 숲이 우거진 곳이며 150여 년 전에 김씨, 우씨, 강씨, 채씨 등이 설촌하여 살다가 1933년 경 김씨와 우씨는 구 좌면 종달리로, 강씨는 동중면 하천리로 떠나면서 마을은 폐동되었다.<sup>18)</sup>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된 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제주군에 예속되었고 좌면이 정의면(旌義面)으로 변경되었다. 1915년 제주도(濟州島) 정의면에 속하였으나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정의면을 성산면으로 개칭하였다. 이 때 수산1리에 속해 있던 수산2리는 가구수가 많아짐에 따라 1939년에 수산2리로 행정업무를 분리운영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濟州道) 남제주군 성산읍 수산리가 되었다.

1948년 4·3 사건시 11월 21일경 소개령에 따라 해안마을로 내려갔으나 12월 1일 다시 돌아와 마을 중심부에 축성을 하고 살았다.

1957년 면조례로 수산1리와 수산2리로 행정리를 분리하였다. 현재 수산1리는 동동, 서동, 중동 등 3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1980년 12월 1일자로 성산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성산읍 수산1리가 되었다.

17)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 연구 P.351~352, 2004

18) 수산리지 P.23, 남제주군 성산읍 수산리, 1994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수산1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1리가 되었다.

## ○ 수산리 전설

### <셋마을의 설촌과 대붕이터>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년 전 수산리 속칭 진빌레 동네에 대붕이터란 곳이 있는데, 그 곳에 대붕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다. 축산을 생업으로 하여 비교적 넉넉하게 살았으나 나이 40이 넘도록 슬하에 후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 하염없는 시름에 잠겨 있던 어느 날, 시주승이 지나가다 하는 말이 ‘부처님께 시주를 후히 하고 지성으로 빌면 자식을 얻을 수 있으리라.’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붕이는 황소 한 마리를 시주하고 지성으로 빌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 달쯤 뒤에 부인이 태기가 있는 게 아닌가. 대붕이는 너무 기쁜 나머지 건강한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하여 부인에게 한달에 소 한 마리씩 10개월 동안 10마리를 잡아 먹여 얻은 자식이 딸이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대로 양육에 온 정성을 다한 결과 일장월취하여 체구가 유달리 크고 힘이 장사였다.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동네에 여장사가 태어났다고 놀랄 정도였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 부인이 또다시 임신을 하게 되었다. 대붕이는 너무 기뻐 다시 소를 잡아 부인을 보신시켰는데, 이번에도 여아를 낳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하다 아홉 마리만 잡아 먹었다. 그러나 낳아 놓고 보니 아들이라 ‘아불싸 그럴 줄 알았으면 여섯 마리쯤 더 잡아 먹일 걸.’ 하고 후회하였으나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지성으로 양육한 결과 누나 못지않을 만큼 체구나 체력이 대단하였다.

이 두 남매가 나이 20이 되었을 때 조천리에서 전도에 걸쳐 씨름 대회가 열린다는 것이었다. 대봉이는 자식놈의 힘을 시험해 보기 위해 아들을 경기에 출전토록 하고, 그보다 힘이 센 딸을 남장시켜 후견인으로 보냈다. 드디어 단오날이 닥쳐 제주 삼읍에서 내노라 하는 장사들이 모두 모였고 많은 관중이 모여 들었다. 시간이 되어 경기가 시작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은 승승장구하여 씨름왕이 되는 찰라에 관중들이 수근대기 시작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제주도내에서는 삼읍의 지역세를 겨루는 경우가 많은 때였다. 아들의 기세를 보아 하니 그를 당할 자가 없음을 알고 모관(조천리는 모관 지경) 사람들이 ‘와!’ 하고 들고 일어나 발모듬으로 아들을 처치하려 하는 것이었다. 이를 미리 예상하고 대기하던 남장한 누나가 ‘내가 씨름왕이 된 저놈과 대결을 하겠다. 나는 모관의 서촌에 살고 있지만 저놈 정도는 능히 이길 자신이 있다.’라고 호령을 하며 나타나는 것이었다. 관중들이 동의하자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다시 대결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는 황소 열 마리를 먹고 태어난 딸의 승리로 끝났다. 만일 그 경기를 치루지 않았다면 아들은 정잇놈이라고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아들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기가 꺾여 돌아왔던 것이다.

씨름에 이긴 누나는 셋길로 재빨리 돌아와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때 동생이 비참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누나는 동생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이야기를 듣던 누나가 동생이 측은하여 마지막에 대결한 사람이 면식이 있는 사람 같지 않더냐고 물었다. 그제야 동생이 그 사람이 남장을 한 누나였다는 것을 깨달았고 온 가족이 환성을 질렀다. 그래서 대봉이의 딸이라고 하면 제주인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전해진다.

## 7. 수산2리의 설촌유래

수산2리는 수산1리에서 서쪽으로 2km 지점에 위치하며 서쪽으로는 표선면 성읍리, 남쪽으로는 난산리와 온평리, 북쪽으로는 시흥리와 구좌읍 중달리와 접하고 있는 중산간마을이다.



1277년(고려 忠烈王 3년)

원나라가 제주도를 지배할 당시(1273~1368 약 1세기) 동서아막(東西阿幕)을 설치하고 다루가치(達魯花赤)로 하여금 몽골 말 160여 필을 제주도에 방목하게 하였다. 이를 관리하는 동아막은 수산평(현 수산2리 경 속칭 남다리 서남쪽 1km 지점)에 설치하여 목양(牧養)토록 하였다. 그 때 원의 기황후(奇皇后)가 탐라적(塔羅赤)으로 하여금 소, 말, 낙타, 나귀, 염소를 실어와 수산평에 방목하고 목호(牧胡)를 두어 감목(監牧)하게 하였다. 그 중에서도 수산평에는 말이 크게 번성하여 산야가 가득하였으니 명월포(明月浦)에서 원으로 반출하였다고 ‘탐라지’에 기록하고 있다. 원나라가 탐라를 지배하며 수산평에 말들을 방목할 당시 수산리에는 취락이 형성되고 연못 등이 시설되어 가축을 방목할만한 여건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유적들이 있는데, 수산 1, 2리 인근 지역에 방묘, 지석묘 등이 산재해 있으며 석기(石器)가 발견되기도 했다.

수산2리는 800여 년 전에 정(鄭)씨, 문(文)씨, 정(丁)씨, 이(伊)씨가 설촌했다고 전해지나 설촌 후에 이들은 속칭 곳앞에 정착하여 촌락을 이루어 농경과 수렵으로 생활했을 것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 후 홍씨(洪氏), 김씨(金氏), 정씨(鄭氏), 박씨(朴氏), 부씨(夫氏), 고씨(高氏), 오씨(吳氏) 등이 이주해 왔다고 하나 생활여건이 좋은 인근 마을이나 인척을 찾아 다른 곳으로 옮긴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으로부터 220여 년 전에 제주 고씨 영곡공파 26세손 고윤태(高允泰)가 수산1리에서 이주해 와 정착한 후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마을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오씨는 세 곳에서 이주해 왔는데 1800년 경에 군위오씨 11세손 중말파인 오덕기(吳德起)가 신흥리에서, 1830년경에는 군위오씨 12세손 중파인 오종요(吳宗耀)가 표선면 토산리에서, 1870년 경에는 군위오씨 13세손인 오대행(吳大行), 오승환(吳丞環), 오승복(吳丞福) 삼 형제가 수산1리에서 이주해 와서 정착하였다.

강(康)씨는 1810년경 신천강씨 설봉공파 14세손 강봉인(康逢仁)이 오조리에서, 양씨는 1890년경 제주양씨 사직공계 17세손인 양응준(梁應俊)이 구좌읍 평대리에서 이주해 와서 살고 있다.

수산2리 옛 이름은 흘앞(訖前:곳앞) 또는 곳앞, 화남동(花南洞:花前과 같은 뜻으로 곳앞), 황무술(黃茂薮)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

1896년 10호를 1통으로 하는 십호작통제가 시행되었고 그 당시 수산리는 수산2리와 황무술이(黃茂薮)까지 한마을로 경민장(警民長:1894부터 경민장제 시행)이 관할하였다. 지금의 수산1리는 당시 22개통, 수산2리는 4개통, 황무술이는 1개통으로 도합 27개통이었다.

황무술이라는 지명은 수산리 중심에서 서쪽으로 5km 지점에 위치한 숲이 우거진 곳이며 150여 년 전에 김씨, 우씨, 강씨, 채씨 등이 설촌하여 살다가 1933년 경 김씨와 우씨는 구좌면 종달리로, 강씨는 동중면 하천리로 떠나면서 마을은 폐동되었다.<sup>19)</sup>

19) 수산리지 P.23, 남제주군 성산읍 수산리, 1994

1905년 정의현 좌면 수산리라 하였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된 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제주군에 예속되었고 좌면이 정의면(旌義面)으로 변경되었다. 1915년 제주도(濟州島) 정의면에 속하였으나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정의면을 성산면으로 개칭하였다. 이 때 수산1리에 속해 있던 수산2리는 가구수가 많아짐에 따라 1939년 수산2구로 행정업무를 분리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濟州道) 남제주군 성산면 수산리가 되었다.

1948년 4·3사건이 일어나자 60여 호 정도 마을을 형성한 수산2구 곳앞마을은 11월 21일경 토벌대에 의해 마을이 전소되었다. 그 때 오도 가도 못하는 청년들이 인근 야산으로 피신을 하였고 그 곳 주민들은 수산1리 주민과 함께 고성리 등지로 소개를 하였으나 청년들이 집을 비운 가족은 도피자 가족이라 하여 희생을 당하기도 하였다.

12월 1일경 수산2리 주민들은 수산1리 주민과 함께 수산1리로 옮겨와 힘겨운 집단생활을 하다가 1954년 5월에야 현재의 수산2리 마을을 재건하였다.

1957년 면조례로 수산1리와 수산2리로 행정리를 분리하였으며 현재 수산2리는 화전동 1개 마을로 이루어졌다.

1980년 12월 1일자로 성산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성산읍 수산2리가 되었다.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수산2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2리가 되었다.

## 8. 온평리의 설초유래

온평리는 제주도에서 자연마을로는 가장 긴 5.5km의 해안선을 끼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고성, 신양리, 서쪽으로는 신산리와 접하고, 서북쪽으로는 난산리와 접하고 있다.

탐라국의 개국신화에서 고양, 부(高, 梁, 夫) 삼신인이



벽랑국(碧浪國)에서 건너온 삼공주를 황루알(온평리) 바닷가에서 처음 맞이하여 혼인지에서 혼례를 올렸다고 하였다. 또한 1974년 화성개 근처에서 돌칼을 발견하였고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현지 학술조사팀에 의해 혼인지굴과 서근케 목은열운이 등지에서 많은 유물 파편들을 발견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1270(고려 元宗 11) 삼별초의 입도에 대비하여 축성하였다는 ‘환해장성’이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복원 사업중에 있으며 ‘탐라기년’에 의하면 이 성의 중간수축을 1845년 겨울에 한 것으로 기록이 돼 있다.

따라서 고려와 몽골의 항쟁기에 해촌을 중심으로 적을 방어하기 위한 환해장성이 축성되면서 많은 인력이 동원되었고 세력이 약한 노비와 평민들은 부역과 방어에 동원되고 세력이 있는 토호나 양반들은 해변에서 떨어진 곳에 마을을 설촌

하게 되었다.

이 때 ‘열운이’라는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그 곳이 ‘묵은열운이’이다. 마을이 형성되고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800여 년 전 부터이며 처음 문씨(文氏)와 함씨(咸氏)가 설촌하여 세력을 얻고 살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몰락했다 한다.

그 후 약 400여 년 전, 1576년경 현재 온평리 마을이 형성된 주변, 묵은 ‘열운이’, ‘귤돌’, ‘다래물’, ‘진동산’, ‘돌개’ 등지에서 생활하던 씨족들 중 연주현(玄)씨가 현 마을로 이주해 오자 나머지 씨족들도 이주해 왔으며 이들 중 고씨(高氏), 강씨(康氏), 송씨(宋氏)가 입주하였다.<sup>20)</sup>

마을을 형성한 씨족들 중 강씨(康氏)는 돌개에, 현씨(玄氏)는 다래물에, 이씨(李氏)는 빈넷골에, 고씨(高氏)는 고치미모루에 정착하였다고 전해진다.

1439년(世宗21)에는 온평리 서포구 ‘진선머리’ 일대에 열운포수전소(閱雲浦水戰所)를 설치하여 병선 1척에 격군(格軍) 85인과 사관(射官) 15인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이 때 온평리 1335-1번지에 말등포연대(末登浦煙臺)를 쌓았고 별장(別將) 6인, 직군(直軍) 12인을 배치하여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였다.<sup>21)</sup>

온평리의 옛이름은 “여을온” 또는 “열운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정의현 봉수대조에 “여을온”, 1601년 남사록(권3)에 “여온포”, 1653년 탐라지에 “열운포”, 탐라순력도(한라장축)에 “영혼포”, 탐라지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에 영혼포 또는 영혼촌, 「호구총수」(정의, 춘읍면)에 여온리(與溫里), 탐라지 초본에 열운포, 또 1750년경의 해동지도 중 제주 3현도에 “영혼포”, 1887년과 1895년의 고문서에 “온평리”, 1899년의 정의군읍지와 지도에 “동·서 온평리”, 속읍청사에 열운이, 토지대장에는 열운이 등으로 표기하였고 1914년 이후의 탐라약도에는 “온평리”, 탐라기년에는 “열운이”라고 표기하였다. 제주읍지 정의현 방라조(아세아문화사)에는 여온리라 하며 “민호는 95호이고 남자는 265명, 여자는 326명(계 591명)”이라고 하였고 “삼군호구기관총책” 정의군 좌면 열운이의 연가는 104호이며 남자 280명, 여자 264명(합 544명)이라고 하였다. 여러 문헌들을 봐도 온평리의 이름이 다양

20) 성산읍지 P.1040, 남제주군 성산읍, 2005

21) 남제주군지 P.638~640, 남제주군, 2006

하게 호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영혼포”와 연혼포 영혼촌이라는 뜻은 한자 뜻 그대로 제주도 개벽신화인 “고, 량, 부” 세 성이 벽랑국(금관국)에서 건너온 세 선녀를 온평리 바닷가인 “황루알”에서 맞이하여 “혼인지”에서 혼례를 올리고 수렵과 농사를 시작하였다고 하는 “삼성신화”와 연관된 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9세기 중반 이전까지는 “열운이”는 주로 “열온이”로 호칭하다가 19세기 중반에 와서 “온평리”로 개칭하였으며 민간에서는 “온(溫)은 따뜻하다는 뜻과 평(平)은 산이 없고 평평하다는 뜻으로 “온평”이라고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9세기말(1899)에 와서는 “동·서 온평리”로 호칭하다가 다시 현재와 같은 “온평리”로 통합되었다.

20세기 초에 온평리(溫平里)로 통합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정의군 좌면 온평리와 신산리 일부를 통합하여 제주군 정의면 온평리라 하였다.<sup>22)</sup>

1915년 제주도(濟州島) 정의면에 속하였으나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라 정의면을 성산면으로 개칭하였다.

현재 온평리는 1동,2동,3동,4동으로 이루어졌다.<sup>23)</sup>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온평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가 되었다.

## ○ 온평리의 전설

<땅에서 솟아난 세 신인이 나라를 열다>

사람이 살지 않던 아득한 옛날, 한라산 북녘기슭 땅에서 세 명의 신인(神人)이

22)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 연구 P.353~355, 2004

23)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 연구 P.356, 2004

숫아났다. 차례로 숫아난 고을나(高乙那), 양을나(良乙那), 부을나(夫乙那) 삼형제는 용모가 의젓하고 기품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량도 넉넉하고 활발했다. 그들은 거친 산야를 뛰어 다니며 사냥을 해 가죽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라산에 올라 동쪽바다를 내려다보던 삼형제는 자줏빛 나무상자가 떠 내려와 바닷가에 머무는 걸 발견했다.

“어? 저게 뭐지? 가보자.”

나무상자를 열어보니 붉은 띠를 두르고 자줏빛 옷을 입은 남자가 새알 모양의 옥함(玉函)을 지키고 있었다. 옥함을 여니 푸른 옷을 입은 십오륙 세의 아리따운 처녀 셋이 나왔다. 또한 망아지, 송아지와 오곡의 씨앗도 들어있었다. 남자는 삼형제에게 절을 하더니 엎드려 말했다.

“나는 동해 벽랑국(碧浪國)의 사자(使者)입니다. 우리 임금님이 이 세 공주를 낳아 곱게 키웠습니다만, 혼기가 되어도 마땅한 배우자가 없어 탄식하던 차에, 서쪽바다의 상서로운 기운을 보시고, 산기슭에 신(神)의 아들 세 사람이 장차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배필이 없다 하시며 세 공주를 데려가라 하셨습니다. 부디 혼례를 올리시고 대업을 이루소서.”

말을 마친 사자는 구름을 타고 홀연히 날아가 버렸다. 삼형제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차례로 짝을 정해 혼례를 올렸다. 그리고 물 좋고 기름진 곳을 골라 역시 차례로 활을 쏘아 거처할 땅을 정했다. 고을나가 사는 곳을 제일도, 양을나가 사는 곳을 제이도, 부을나가 사는 곳을 제삼도라 했다.

이때부터 오곡의 씨앗을 뿌리고 말과 소를 기르게 되니 날로 백성이 많아지고 풍요로워져 마침내 인간세상인 ‘탐라국’을 이루게 되었다.

한편 혼인지는 일주도로 제주시 방향 버스정류장에서 북쪽으로 500여 미터 지점에 있으며 1971년 8월 26일 제주도 기념물 제17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 세 신인의 이야기인 개국신화의 흔적은 지금도 제주 곳곳에 남아있어 신비로움을 더한다. 그들이 숫아난 구멍은 ‘모홍굴’, 곧 지금의 제주시 중심에 있는 ‘삼성혈’이며, 성산읍 온평리에는 세 공주를 맞은 바닷가 ‘황루알’과 혼례를 올리기 위해 목욕재계한 연못인 ‘혼인지’가 있으며 지금도 황루알에는 삼신인이 바

닷가에서 육지로 처음 올라올 때 디딘 말 발자국이 아련히 남아있다  
한편 제주시 화북동에는 세 신인이 거처를 정하기 위해 활을 쏘았다는 장소인  
‘활쏜디왓’이 있고, 그때 쏜 화살촉 자국이 선명한 ‘삼사석’이 모여져 남아있다.

※참고문헌. 제주도(2001). 「제주역사문화관광 가이드북」. 도서출판 각  
제주도(2003). 「제주관광매뉴얼 Jeju」. 도서출판 각  
이영권(2004). 「제주역사기행」. 한겨레신문사. 남제주문화원(2006)

## 9. 난산리의 설촌유래

난산리는 온평리에서 한

라산쪽으로 2.4km, 신산리에서 북쪽으로 2km 떨어져 있고 북으로는 수산리, 서북쪽으로는 표선면 성읍리와 접하고 있다. 1975년 도로 포장용 골재를 채취하다가



속칭 ‘면의모루’ 옆에서 돌도끼 2점, 돌끌 1점이 발견되었으며, ‘새모슬’에서는 돌바가지 1점이 발견되었다. 이 유물들은 신석기시대의 것들로서 그 때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1000여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구전에 의하면 난산리는 현 위치에서 서북쪽으로 3km 떨어진 지점인 ‘새모슬’에서 경주김씨(998~1009)가 입주하여 마을을 형성하여 살다가 현 위치로 이주하여 직촌제 시대에는 난미촌으로 1380년 경 마을을 이루었다고 한다.

1970년대 난산리 면의모루 동네에서 마제석기가 출토된 것으로 보면 입주 연대는 신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듯하며 제주 3읍시대에 취락은 절정에 이르렀고 양반 유림촌이 형성되어 중핵취락으로 번영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sup>24)</sup>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모슬’에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는 ‘당팔골’이 있고 동쪽 300m 지점에 식수용 물통인 ‘동물’이 남아있음을 보거나 ‘새모슬’에서 돌바가지 1개가 발견된 점으로 보아 짐작이 간다.

조선중기 때에 군위오씨가 들어오면서 마을이 커졌고, 그 후에 다시 오씨와 김씨가 들어왔다고 한다. 현 위치에 정착하게 된 것은 토지가 비옥하여 사람이 살기 좋다 하여 입주하였다. 그러나 지형이 신산리로 기울어져 있어 부귀(富貴)가 흘러가버린다고 믿어 ‘앞빌레(절간 앞)’에 방사탑(防邪塔)인 ‘거옥대’를 세우기도 했다.

난산리의 옛이름은 ‘난미’이다. 「탐라지도」에 ‘亂禿村/난미마을’, 「제주삼읍도총지도」에 ‘亂毛村/난미마을’, 「제주삼읍전도」와 「정의군지도」 등에 ‘東蘭山里/동난미마을, 西蘭山里/서난미마을’, 「정의읍지」와 「정의지도」에 ‘蘭山里/난미마을’, 일제시대의 지도에는 ‘蘭山里/난미마을, 蘭野里/난드르마을’ 등으로 표기되었다.

「제주읍지」에는 “난미촌은 정의현 관문에서 동쪽으로 20리의 거리에 있다. 민호는 58호, 남자는 143명, 여자는 212명이다.(難山里, 自官門東距二十里, 民戶五十八, 男一百四十三, 女二百十二)”라 하였고,

「삼군호가간총책」에는 “난미의 연가는 84호이다. 남자 243명과 여자 255명을 합하여 500명이고, 초가는 135칸이다.(蘭山, 烟家八十四戶, 男二百四十五口, 女二百五十五口, 舍五百口, 草家一百三十五間)”이라 했다.

민간에서는 ‘난피, 난미’라고 한다. 18세기 중후반에 동·서난산리로 나뉘었다가 20세기 초반 다시 蘭山里로 통합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정의군 좌면 난산리, 그리고 성읍리(城邑里) 일부를 통합하여 제주군 정의면 난산리로 하였다.

1915년 제주도(濟州島) 정의면에 속하였으나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정의면을 성산면으로 개칭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濟州道) 남제주군 성산면 난산리가 되었고 1980년 12월 1일 성산면이 읍으로 승격하였다.

현재 난산리는 종종 옛 이름인 난미라 부르고 있으며 상동과 하동 2개의 자연

24) 난산리지, 남제주군 성산읍 난산리, 1999

마을로 이루어졌다.<sup>25)</sup>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난산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가 되었다.

## 10. 신산리의 설촌유래

신산리는 북쪽으로 2km 거리에 난산리가 있고 북서쪽으로 2km 떨어진 곳에 독자봉(独子峰)이 있다. 그리고 동쪽으로 2km를 가면 온평리가 있고 서쪽으로는 삼달 2리와 접한 해안마을로서 성산읍 서부지역이 거점이다.



1439년(世宗 21)에는 신산리 1785번지 독자봉(独子峰)에 봉수대를 쌓았고 별장(別將) 6인, 봉군(烽軍) 12인을 배치하여 왜구를 감시하였다.

신산리의 설촌은 고인돌, 본향당, 독자봉수, 말등포연대, 환해장성 등의 역사적인 자료들을 참조해 보면 지금으로부터 450년 전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처음에는 신산리 625번지 신술목(신이 사는 집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곳에 연주현씨 일가와 곡산강씨 일가 20여 호가 촌락을 이루어 살다가 생활환경이 변하고 식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바닷가 용천수를 이용할 수 있고 해산물 채집 등 여러모로 생활하는데 좋은 여건과 환경을 갖춘 지금 현재 취락이 형성되어

25)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 연구 P.356, 2004

있는 안카름(중하동지역)으로 내려왔다.

1601년(宣祖 34) 안무어사(按撫御使)로 제주에 파견되었던 김상헌(金尙憲)이 쓴 남사록에 보면 김상헌은 정의현의 구륙군을 열거하며 정박시킬만한 포구로 현 동쪽 15리에 말등포(末登浦)가 있다 하였다.

마을 이름은 말등포, 말등촌(末等村:곶등개을)으로 불리어오다가 200여 년 전 어떤 풍수사의 도움으로 신산으로 개명하였다고 한다. 18세기 말에는 정의현 좌면 신산리로 표기되어 있다.

신산리의 옛 이름은 ‘그등개, 그등애’이다. 「남사록」 과 「탐라순력도」 등에는 ‘末等浦/곶등개’, 「탐라지도」 에는 ‘末等浦/곶등개’, ‘末等村/곶등개마을’, 「제주삼읍도총지도」 에는 ‘末等浦/곶등개, 末等烽/곶등개봉, 新山里/신산마을’, 「정의읍지」 에는 ‘新山里/신산마을로 표기하였다.

「제주읍지」 에는 “신산리는 정의현 관문에서 동남쪽으로 18리의 거리에 있다. 민호는 48호, 남자는 135명, 여자는 147명이다.(新山里, 自官門東南距十八里, 民戶四十八, 男一百三十五, 女一百四十七)”라 하였고, 「삼군호구가간총책」 에는 “신산의 연가는 79호이다. 남자 208명과 여자 238명을 합하여 446명이고, 초가는 122칸이다.(新山, 烟家七十九戶, 男二百八九, 女二百三十八口, 舍四百四十六口, 草家一百二十二間)”이라 했다.

18세기 후반에 ‘곶등개, 그등애’는 신산리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신산리는 속칭 ‘신산·신산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정의군 좌면 신산리 일부 지역을 제주군 정의면 신산리로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된 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제주군에 예속되었고 좌면이 정의면(旌義面)으로 변경되었다. 1915년 제주도(濟州島) 정의면에 속하였으나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라 정의면을 성산면으로 개칭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濟州道) 남제주군 성산면 신산리가 되었다.

1980년 12월 1일자로 성산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성산읍 신산리가 되었다. 신산리는 현재 동상동, 중하동, 서동, 신서동 등 4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신산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가 되었다.

## 11. 삼달1리의 설촌유래

삼달1리는 삼달2리에서 북쪽으로 1.5km 떨어져 있고 동북쪽으로는 독자봉(独子峰)을 경계로 신산리와 접하고 통오름(桶岳)을 사이에 두고 난산리와 경계를 이룬다. 또한 서북쪽으로는 남산봉(南山峰)을 기점으로 성읍리와 맞닿아 있다.



대개의 마을들이 그러하듯이 이 곳도 예외는 아니어서 설촌유래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으나 구전하는 바에 의하면 처음 부락이 형성되었던 곳이 더러물래(川) 주변이었다. 그 형상이 마치 누워있는 강과 닮았다 하여 와강(臥江)이라 부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와강 마을의 형성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여 년 전 한상이터와 수옹이터를 중심으로 경주김씨, 청주한씨, 진주강씨, 제주고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5, 6여 호의 가구를 이루며 살았는데 크게 번창하지는 못했다.

그러던 중 1749년(영조 25)에 신천리에서 신천강씨가 자녀 육남매를 데리고 와 강리로 이주했는데 점차 와강리의 중심적인 문중으로 형성되었으며 오늘까지도 면면히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그 후 1761년(영조 37) 광산김씨와 제주고씨가 들어왔고 또다른 신천강씨가 온평리에서, 그리고 곡산강씨가 하천리에서 이주하여 읍으로써 와강리는 차츰 마을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와강이라는 리명(里名)은 양반이 사는 곳으로는 적합지 못하다 하여 삼달(三達)이라고 개명하게 되었는데 그 일을 해 낸 분이 강성익(康聖翊) 공이다.

공의 공적은 삼달1리에 자리잡은 헌수단(獻壽壇)의 비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공은 일명(一鳴)의 자로서 자는 오응(吳應), 호는 명재(明齋)이며 조선 영정조 시대 지평(持平), 장령(掌令)벼슬 등을 역임하면서 청렴과 충직으로 명성을 떨치던 분이다.

공이 지평직을 맡은 1795년(正祖 19) 조정에서 와강이라는 지명이 좋지 않다고 함으로 부강하고 만사형통할 수 있는 고을을 뜻하여 삼달이라고 개명하기에 이른 것이다.

삼달에 내포되고 있는 의미를 풀이해 본다면 사람이 통달해야 할 세가지 뜻을 뜻하는 이름인데 “첫째로 조정에서는 규율이 중요하고, 둘째로 고을에서는 웃어른을 섬겨야 하며, 셋째로 세상에 보은과 백성을 위하는 것을 덕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뜻이다.

삼달, 즉 셋을 통달하면 천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후 지금까지 천(賤)한 사람은 이 곳에 살 수 없었으며 그로서 반촌(班村)으로 발전하여 왔다.

강성익 공은 이 곳에 헌수단을 건립하여 임금님의 만수와 국태민안을 소원하였으니 지나는 사람마다 하마(下馬)해서 경허한 마음을 표했으며, 오늘날에는 마을의 문화재로서 향토자료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설촌 35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와강 마을을 최초로 개척했던 제주고씨, 청주한씨, 진주강씨 일가가 살았다는 한상이터, 수옹이터 등이 구전으로 남아있으나 그 후손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타지로 이주한 것으로 보이나 그 중 경주김씨 장손만이 유일하게 삼달2리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삼달1리에 거주하고 있는 호주들의 성씨를 통계하여 보면 신천강씨와 그보다 조금 늦게 입주한 광산김씨 문종이 수적으로 우세하다.

신천강씨가 와강리에 입주할 당시 광산김씨는 성익공의 맏아들 제주고씨 역시 성익공의 맏아들 광산김씨는 성익공의 장녀와 군위오씨는 차녀와 혼인함으로써 삼달리에 정착하게 되었고, 고씨외계인 동래정씨와 김씨외손인 연주현씨가 인척관계를 맺으며 이 곳에 뿌리를 내려 강, 김, 고, 오, 정, 현 육성이 삼달1리의 역사와 더불어 호흡을 같이 해 오고 있다.<sup>26)</sup>

삼달리는 탐라순력도에 와강(臥崗:와강이)으로, 탐라지도 등에 와강촌(臥江村), 제주삼읍전도와 정의군지도 등에 삼달리(三達里) 등으로 표기되었고, 1795년(정조 19)에 정의현 좌면 삼달리가 되었다.

구전에 의하면 처음 마을이 형성되었던 <더러물내>의 지형지세가 마치 강이 누워있는 것과 같다 하여 <되미모루>라 하여 와강이(臥江理)라 부르던 것이 변형되어 『와강이』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이 마을은 『신천리』에서 신천강씨(新川康氏)가 자식 육남매를 데리고 조선조 영조 25년(1749)에 이주해 오면서 형성되었다고 전해진다. 얼마 후 양반이 사는 마을로 『와강이』는 적합하지 못하다 하여 강성익(康聖翊)에 의해 부강(富強)하고 만사형통(万事亨通)할 수 있는 마을임을 강조하여 『삼달리』로 바꾸었다. 이 마을의 이름에 숨은 뜻이 내포된 구체적인 내용은, 사람이 통달(通達)해야 할 세덕목이 있는데 이를 통하면 천한 사람이 없다 하여 첫째 규율이 중요하고, 둘째 웃어른을 섬겨야 하고, 셋째로 세상에 보은하고 백성을 위하는 것이라 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된 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제주군에 예속되었고 좌면이 정의면(旌義面)으로 변경되었다. 1915년 제주도(濟州島) 정의면에 속하였으나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정의면을 성산면으로 개칭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濟州道) 남제주군 성산면 삼달리가 되었다.

26) 성산읍지 P.1144, 남제주군 성산읍, 2005

1946년 와깁이지역을 삼달1리로, 분들잇개를 포함하는 주어코지 일대를 삼달2리로 분리하였다.

현재 삼달1리는 와깁이라는 1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sup>27)</sup>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삼달1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1리가 되었다.

## 12. 삼달2리의 설촌유래

삼달2리는 삼달1리 남쪽으로 1.5km 떨어져 있으며 동쪽으로는 신산리이고 서쪽으로는 신평리와 경계를 접하는 해안마을이다.

삼달2리는 지금으로부터 170여 년 전에 신평리에 살던 유명한 풍수가인 강순신



(康舜信:谷山)이라는 분이 자손 만대에 번영을 누릴 곳을 찾아 성산, 신양리 등지를 돌아다녔다. 그러다 성산리 통밭에 10냥을 주고 주거지를 마련하였지만 왜구의 침입과 바람이 심하다는 이유로 외가에서 한사코 반대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자 신양리쪽에 거주지를 정하려 하였으나 물이 귀한 관계로 포기하였다. 그렇게 주거할 땅을 찾아 고심하던 그는 주어(駐漁) 지역을 둘러보았는데 분야포(分野浦)에서는 맑은 샘물이 용출하고 주위에는 토지가 널려 있어서 현 삼달2리 44번지에 정착하게 되었다.

27)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 연구 P.358~360, 2004

당시 이 마을 사정은 아무리 가물어도 식수 걱정이 없었고, 농사가 잘 되어 양식도 걱정이 없었으나 왜구의 침입은 예외가 아니어서 안주에 어려움이 많았다. 할 수 없이 그는 식구들을 거느리고 현재 삼달1리 540번지로 이주하여 왜구의 침입이 없을 때만 주어로 내려가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1890년경(고종 때) 왜구의 침입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서 주어에 상주하게 되었고, 이 때 광산김씨를 사위로 맞게 되는데 이로서 김씨 일족이 정착하게 되었다. 그 후 삼달1리에서는 경주김씨가, 우도에서는 김해김씨가 이주해 오면서 마을의 형태를 이루고 1920년경에는 20여 호가 거주하게 되었다.<sup>28)</sup>

삼달2리의 옛 이름은 분들잇개와 주어코지다.

탐라순력도의 ‘한라장축’과 ‘탐라지도’ 등에는 분입포(分入浦:분들잇개), ‘호구총수’ 정의, 촌읍면에는 삼달리(三達里)로 되어 있다. 일제 때 지도에 대동리(大同里)라 표시되었는데 큰골왓 일대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한 듯하다.<sup>29)</sup>

구전에 의하면 지금의 「신산리」에 속하는 「분드르」의 <분야포(分野浦)>에서 <대포(大浦)>에 이르는 바다는 수산자원이 풍부한데 그 중에서도 다양한 어족(魚族)이 모여드는 바다라고 하여 「주어(駐漁)」라고 불리우게 되었다고 한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된 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제주군 정의면 삼달리에 속하였고 1915년 제주도(濟州島) 정의면에 속하였으나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정의면을 성산면으로 개칭하였다.

1942년 속칭 ‘곽새왓’ 네거리를 기점으로 1구와 2구로 나누어 마을 행정을 집행해 왔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濟州道) 남제주군 성산을 삼달리가 되었다.

1946년에 과거 1구는 삼달1리, 2구는 삼달2리가 되었으며 현재 주어동 1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28) 성산읍지 P.1144~1145, 남제주군 성산읍, 2005

29)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 연구 P.360, 2004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삼달2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2리가 되었다.

### 13. 신평리의 설촌유래

신평리는 성산읍의 맨 서쪽 마을이며 친미친을 경계로 표선면 세화1리와 경계를 이루고 동쪽은 삼달1리, 북쪽은 성읍1리, 남쪽은 신천리와 접해있는 중산간 마을이다. 이 마을을 풍수지리상으로 볼 때 속칭 족새루던데못



(道韻台地)은 청룡이고 장자못 동산은 백호이며 곱주리동산은 안산(案山)이다.

신평리의 설촌연대는 이 지역에서 출토된 돌칼, 돌도끼와 해안에 있는 고인돌 등 선사시대의 유물로 미루어 보면 선사시대에 이미 사람이 살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한 촌락 형태가 이루어진 것은 1423년(世宗 5년) 정의현이 고성리에서 현 표선면 성읍리로 이전되면서부터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그리고 1439년(世宗 21)에는 신평리 1657-1번지 남산봉에 봉수대를 쌓았고 별장(別將) 6인, 봉군(烽軍) 12인을 배치하여 연통(煙通)을 받아 대변청에 알렸다.

구전에 의하면 이 마을에 현씨 이방이 살던 집터라 지칭된 속칭 ‘선이방터’와 현비장의 무덤이 있어 연유한 ‘현비장골’이란 지명이 있다.

선이방(玄吏房), 선비장(玄裨將) 등 지명에 관직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현씨 성을 가진 관리들이 퇴임하고 읍성(邑城)이 가깝고, 천미천에 식수가 풍부하여 모여 살게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또한 부씨, 변씨, 고씨도 살았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1751년경 광주조씨인 조량(趙良)이 입촌하였고 1684년(肅宗 10)경에 오치원(吳致元), 오계원(吳啓元) 형제가 입주하였고, 1726년(英祖 2)에는 신천강씨인 강영흥(康穎興)이, 같은 해 뒤를 이어 경주김씨 김광수(金光燧)가 입촌하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광산김씨인 김광원(金光元)이 입주한 뒤 임씨, 홍씨, 김해김씨, 청주김씨가 입주하여 마을을 이루었다고 한다.

조선왕조 초기에는 천미천의 동, 서쪽에 몇 호씩 흩어져 살아 지금과 같은 촌락은 형성되지 않았으나 중엽으로 내려오면서 자연적으로 마을이 커지며 인구가 증가하였다. 더욱이 반상이 구별되면서 향족(鄕族)과 이족(夷族)이 구별되었고 향족은 내의 위쪽, 토족은 내의 아래쪽에 마을을 형성하게 되자 윗마을은 웃내끼(上川尾), 아래마을은 알내끼(下川尾)라 부르게 되었다.

신평리, 『신천리』, 『하천리』 세 마을을 본디 <내끼>라 했는데 이는 내(川)의 꼬트머리라는 뜻이다. 처사 오억령의 묘비와 호장 강필변의 묘비에 <천미촌(川尾村)>, <川尾理>라 기록된 것이 최초의 기록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본디 한자어로는 <개로천(介路川)>이라 했고 <진순내>라고도 불리웠다. 조선조 중기에 이르러 반상의 구별이 심해짐에 따라 향족(鄕族)과 토족(土族)으로 구별하면서 향족은 내(川)의 윗쪽, 토족은 아랫쪽으로 모여살면서부터 윗마을을 『웃내끼』라 하여 한자어로는 『상천미(上川尾)』, 아래마을은 『알내끼』라 하고 『하천미(下川尾)』라고 했던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지금도 이 곳에는 천미천을 끼고 형성된 마을 신평, 신천, 표선면 하천리, 이 세

마을을 통틀어 냇끼라 부르고 신평리를 상천미라 부르는 사람도 있다.<sup>30)</sup>

신평리는 「탐라지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천미촌(川尾村 : 내각마을)로 「호구총수」(정의 촌, 읍면)에 신평리(新豊里), 「제주군읍지」(제주지도) 등에 상천리(上川里 : 웃내각마을)라 하였다.<sup>31)</sup>

그러다가 1840년에 이 마을의 대학자인 오진조(吳眞祚)가 오장헌(吳章獻)의 패공고사(沛公故事)를 따라 신평리라 개명하였다. 그 후에 나온 「정의읍지」와 「정의지도」 등에 신평리(新豊里)와 신평리(新坪里)로 표기되어 있다.

그래서 1900년대 초반까지는 신평리와 신평리가 공존해 있었으나 1910년경 신평리는 신평리에 통합되었다.

신평리(新豊里)란 이름은 새롭고 풍요로운 마을을 지향하여 그렇게 뜻을 두어야 한다는 뜻으로 1840년(철종 6)에 이 마을 사람 오진조(吳眞祚)에 의해 명명되어 지금에 이른다.

천미천은 내각의 한자용 표기이며 상류는 진손천(辰巽川), 하류는 개룻내(介老川)라 하였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된 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정의군 좌면 신평리라 하였으나 같은해 제주군 정의면 신평리가 되었다. 1915년 제주도(濟州島) 정의면에 속하였으나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라 정의면을 성산면으로 개칭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濟州道) 남제주군 성산면 신평리가 되었다.

1980년 12월 1일자로 성산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성산읍 신평리가 되었다. 현재 신평리는 본동과 큰개동 등 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30) 성산읍지 P.1168~1169, 남제주군 성산읍, 2005

31)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 연구 P.361~362, 2004

이에 따라 신평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평리가 되었다.

### ○ 신평, 신천, 하천의 마을이름에 대하여

원래는 신평(新豊)·하천(下川) 두 마을을 '내끼'라 칭했었다. 원래는 한 마을이었다가 고종때 강학수 현감이 하천리를 분리시키고 속칭 '묵은가름'에서 현재의 위치로 부락을 옮겼다고 한다.

신천리는 마을 이름이 보여주듯 마을 형성이 늦게 되었다. 천미포란(川尾浦亂) 때만 하여도 불과 5, 6호였다고 한다. 아마 천미포란을 겪고 천미연대가 외적 방어상 더욱 중요시되어 많은 군사를 주둔시킴으로 인하여 호수가 증가되지 않았는가 한다. 신평리는 오(吳)씨가, 신천리는 현(玄)씨가, 하천리는 강(姜)씨가 주성을 이루어 지금에 이르렀다.

신평, 신천, 하천 세 마을은 원래 '내끼'라 불리어졌다. '내의 끝 냇가'라는 뜻인 듯하다. 문자로 기록할 때는 내의 끝이라는 뜻을 따서 천미촌, 혹은 천미리라 기록하였다. 이의 최초의 기록은 처사 오억령(吳億齡) 묘비와 호장 강필번(康弼藩) 묘비에 보인다. 여기에서 말하는 내는 곧 천미천을 말하는데, 천미천은 천미촌이 이루어진 후 마을 이름 천미촌으로 인하여 다시 생겨난 이름이고 원래 이 내의 이름은 '개로천, 진순내'라 불렸었다.

조선왕조 초기에는 천미천의 동·서쪽에 몇 호씩 흩어져 살아 지금과 같은 집단부락은 이루어지지 못한 듯하다. 왕조 중엽으로 내려오면서 자연히 마을이 커지고 인구가 불어났다. 또 반상의 구별이 심하여짐에 따라 향족(鄉族)과 토족(土族)이 구별되기 시작하면서 향족은 내의 위쪽, 토족은 내의 아래쪽을 알내끼(下川尾)라 부르게 되었다. 천미포란 이후에 천미연대 부근에 마을이 이루어져 '새로 된 내끼'라는 뜻에서 신천리라 부르게 되었다.

이 세 마을, 즉 신평, 신천, 하천을 통틀어 지금도 노인들은 '내끼'라 부르고 있고 신평리를 상천미(上川尾)라 부르는 사람도 많다. 하천리와 신천리는 마을 이름을 바꾼 일이 없지만 상천리는 순조, 철종 년간에 당시 대학자인 오진조

(吳真祚)가 오장헌(吳章獻)의 패공고사(沛公故事)를 따라 신평리라 고쳤고 고종 말년에 마을을 둘로 나누어 신평리, 신평리라 부르다가 다시 합쳐서 신평리라 불렀다. 위에 적은 오진조의 문집에 정의풍촌(旌義豊村)이라고 적혀 있고 광무 8년에 기록된 삼군호구가간총책에는 신평리, 신평리, 하천리라 적혀 있다. 융희 2년의 호적단자에는 신평리만 기록되고 신평리는 없다.

#### 14. 신평리의 설촌유래

신평리는 성산읍과 표선면의 경계를 이루는 천미천 동쪽에 형성된 해안 마을로 북쪽으로 3km, 동쪽으로 2km를 가면 신평리에 이른다.

이 마을 일주도로 남쪽 해안에는 10만 평이나 되는 잔디밭이 펼쳐지며 신평마을의 하목장이었다.

이 목장 내에 용암동굴인 마장굴이 있는데 그 내부에서 신석기시대와 탐라시대 유물이 패총과 함께 출토되었다. 이것으로 보아 신평리에는 오래 전부터 사람이 거주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sup>32)</sup>



32) 성산읍지 P.1196~1197, 남제주군 성산읍, 2005

1439년(世宗 21)에는 신천리 267번지에 천미연대(川尾煙台)를 쌓았고 별장(別將) 6인, 직군(直軍) 12인을 배치하여 왜구를 감시하였다.

1552년(明宗 7) 5월에 왜적이 천미포(川尾浦)에 침입하여 주민을 살상하고 재물을 약탈하므로 2일이나 전투가 계속되었다. 이 때 의문책으로 김충렬(金忠烈) 목사와 김인(金仁) 현감을 파직하고 남치근(南致勤) 목사와 신지상(慎之祥) 현감으로 교체하였다. 1554년(明宗 9) 5월에 또다시 왜선 1척이 천미포 근처에 정박하였다가 10여 명이 상륙함으로써 교전이 벌어졌고 그 중 1명을 사살하니 왜구는 세가 불리함을 느끼고 퇴각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면 이 시기에 아마도 신천리 지역에 설촌이 이루어진 것 같다. 이렇게 하여 신천리에는 500여 년 전에 현씨, 고씨, 최씨 등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신천리는 「중종실록」 5년 9월 기사(己巳)와 「탐라순력도」 한라장측에는 천미포(川尾浦 : 내각개)로, 「탐라지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천미포(川尾浦 : 내각개), 천미장(川尾場 : 내각장), 천미촌(川尾村 : 내각마을) 등으로 표기되었으며 천미(川尾)는 내각의 한자용 표기이다.

신천리 마을은 본디 『신평리』, 『하천리』와 한 마을로 『내끼』라고 불리워지다가 <웃내끼>를 『신평리』, <알내끼>를 『하천리』라 하여 분리되었던 것을 냇가를 분기점으로 다시 <알내끼>에서 <셋내끼>를 잘라내어 새로운 마을을 형성한 것이 『신천리』다.

처음 이 마을이 설촌되기는 약 380여 년 전 조선조 광해군 원년(서기 1609년)에 당시 <셋내끼> 한복판에 있던 『천미연대(川尾煙台)』에 근무하던 이들과 『신평리』와 『하천리』 주민 중에 생활이 어려운 이들이 어로행위를 생활의 근간으로 삼아 이주하면서였다. 설촌터는 신평리 지경과 하천리 낫밭과 인접한 두 지역으로 바닷가였다. 설촌 씨족들은 현(玄), 고(高), 최(崔)씨였다고 전해진다. 이후 1915년에 정의면 『신천리』라 하였다가 성산면 『신천리』로 되어 오늘에 이른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된 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정의군 좌면

신천리라 하였으나 같은 해 하천 일부를 통합하여 제주군 정의면 신천리가 되었다.<sup>33)</sup>

1915년 제주도(濟州島) 정의면에 속하였으나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라 정의면을 성산면으로 개칭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濟州道) 남제주군 성산면 신천리가 되었다. 1980년 12월 1일자로 성산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성산읍 신천리가 되었다. 현재 신천리는 상동가 하동 등 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신천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가 되었다.

## ○ 신천리의 전설

### <용궁올래와 칼선도리>

바닷가에 용의 머리처럼 생긴 기암괴석들이 즐비하여 『용머리』라고 하며, 그 바로 앞의 바다 속에 일직선의 길다란 골짜기가 형성되어 물에서 보면 질푸른 물결이 울렁이므로 남해용궁(南海龍宮)으로 들어가는 문이라 하여 『용궁올래』, 그 옆의 칼날처럼 서 있는 바위를 『칼선도리』라고 한다.

이 바다는 주변의 다른 잠수바다에 비해 수심이 깊고 예로부터 전해오기를 용궁으로 들어가는 문이라 하여 평소 잠수들이 물질을 기피하는 곳이다. 옛날 옷내끼에 사는 상군 잠수 송씨는 혼자서 곧잘 이 『용궁올래』에서 물질을 했는데, 그만치 물질도 잘하고 대답했다. 그 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그 곳에서 물

33)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 연구 P.362~363, 2004

질을 하고 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전복이 보였다. 송씨는 자맥질해 들어갔다. 미리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물길은 깊었다. 도무지 전복을 딸성 싶지 않았으나 욕심을 내어 빗창을 전복 옆구리에 찢러 넣었다. 그 순간 정신이 아뜩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햇별이 짹짹 내리쬐고 강아지가 깨갱거리는 소리가 들렸는가 싶었는데 나타나 꼬리를 살살 흔들며 따라오라는 듯이 굴었다. 송씨가 강아지를 가보니, 이견 별천지였다.

아방궁같은 집들이 즐비하고 길을 오가는 이들의 의복은 눈이 부실 정도로 호사스러웠다. 송씨는 냇을 잃고 주변을 이리저리 살피는데 예쁜 아가씨가 나타나 어디서 온 누구냐고 물었다. 정의고을 웃내끼 사는데 물질을 하다가 전복을 발견하고 빗창을 찢러넣었는데 그만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보니 저도 모르게 여기에 있더라고 대답을 하였다. 그러니 여기는 남해용궁이라 세상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며 만일 들어온 것이 용왕에게 알려지면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도와줄테니 어서 인간 세상으로 나가라고 했다.

그 아가씨가 송씨를 인도하면서 한 가지 다짐받기를 인간세상에 나가고 싶으면 꼭 지켜야 할 게 있는데,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곧장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송씨는 시키는 그대로 했다. 막 용궁을 벗어날 무렵 그 아름다운 별천지를 한번 더 보고 싶었다. 고개를 뒤로 돌리자마자 사방천지가 깜깜했다. 깜짝 놀라 앞을 보니 수문장이 가로 막고 서있었다. 인간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왔느냐고 그는 불호령을 쳤다. 송씨는 침착하게 자초지종을 말하고 세상에 늙은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데 자신이 죽고나면 그들은 누가 돌보느냐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러자 수문장은 함부로 침입한 죄 마땅하나 늙은 부모를 생각하여 살려준다고 했다.

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처음 보았던 강아지가 다시 나타나 꼬리를 흔들면서 길을 안내했다. 강아지를 뒤따라 나와보니 전복을 따러던 『용궁올레』 까지 왔다. 송씨는 살았다고 만세를 불렀다. 그 바로 직후 『용궁올레』 옆에 칼날 같이 날카로운 바위가 우뚝 솟아 올랐는데 이는 남해용궁으로 세상사람들이 두 번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그 바위가 칼날이 위로 선 것과 같은

다리모양을 하고 있다하여 『칼선도리』 라고 불리운다.